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 性 洙
印刷人 崔 善 益

光州의富豪婦女暴行事件

一

世上이 惡함으로 사람이 惡化하는지 사람이 惡함으로 世上이 惡化하야지는지 그것은 觀察에 따라 다르려니와 何如間 요지음에 들니는 여러가지 事件中 더욱 光州에서 이러난 婦女의 暴行事件은 暴行이라고 하는것 보다도 차라리 殘忍한 蠻行이라고할지니 이것은 到底히 發憤할 事實이라고 아니할수업다 婦女의 行動中에 男子에 比하야 特性히 殘酷性을 더하는바가 만한것은 그대지 犧牲하지아니한바 이지만은 그 殘忍性이 發揮되는 範圍와 程度에 따라서 그 罪惡이 個人的의 問題에 그칠것도 잇슬것이오 或은 社會的으로 重大視할것도 잇슬것이다 그럼으로 五人이 今番 光州暴行事件을 特히 指摘하고 世人의 注目을 喚起하고저 하는것은 男子의 行動이라고 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케 婦女의 行動이 아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참아하지 못할 일일뿐아니라 人情에 背馳한 女性으로는 더욱히 하지못할 바라고 할것이다

二

只今 細密하야 그 眞相을 報道하는 다시 本欄에 再錄하지 아니하거니와 如何히 殘忍無道하엿든 것을 直覺的으로 觀察할 수 잇섯다 그러나 이와 가치 暴惡한 事件이 經過하엿지만은 不拘하고 加害者는 勿論이오 被害者에 對하야 未安한 생각을 誠意잇게 表하지 아니하엿슴은 실로 如何한 것이랴 그러나 이는 오히려 經濟上으로 能力이 업는 婦女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相當한 財力을 가진 男便의 夫人들이니 多少人情이 잇는 사람들이면 大義를 바로두고 보지 못할 慨歎을 이르킬 것이다 그러나 그 加害者는 勿論이오 그 責任者의 地位에 잇는 그네에게 對하야도 그대로 默認하고 잇섯고 그 地方의 人士들도 富豪家의 일이라 하야 一般社會에서 그 동안 何等의 社會的 輿論으로서의 制裁와 糾彈이 업섯다 하니 이것이 어찌 光州人士들의 恥辱이 아니고 무엇이냐

三

司法上 處罰에 對하야도 그 問題는 여러가지로 論議할 바가 잇섯다 하지만은 아즉까지 終結된 것이 아니라 現今 進行中에 잇스니 人道的 見地는 姑捨하고 法律上 見地에서만으로도 그에 相當한 措斷이 잇슬터이니 吾人이 이에 對하야 더 云謂하고저 아니한다 못法律問題는 法律問題요 社會道德은 또다른 方面에서 그 氣運을 지지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吾人의 本意는 우리 社會는 絕對한 힘의 所有者가 官權이 아니면 財產家이니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잇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社會道德을 蹂躪하는 바가 만하이다 今番事件도 分明히 富豪의 橫暴로 蹂躪된 光州의 事件이다

八時間勞働制 炭主側의反對

不當한賃金率案提議

政府案上院提出延期

下院을 通過하야 上院에 提出될 炭坑八時間勞働法案은 七日에 最終的으로 決定하기 爲하야 上院에 提出될 터이엿든바 政府는 該案을 下院을 通過한 그대로 上院에 附議할터이엿스나 坑主側에서 坑夫賃金率에 對하야 不當한 提案을 한 者가 잇서 炭坑委員의 報告에 基한 解決案의 根據를 無視한 提案이 잇슴으로 政府는 同法案의 提出을 延期하기로 하엿다더라(倫敦電)

坑主側屈服乃已

政府와坑夫의態度에

英國政府는 「요ー크샤」의 炭鑛主 「스다ー」 公領高貴「써실」子는 即時 坑主側이 提議한 坑夫의 新賃銀率提案을 上院에서 發表하되 坑主側이 不滿한 것은 坑夫側이 率直히 그 態度를 改하야 八時間勞働法案의 上院에서의 最終的 討議를 延期하도록 하자는 것이엿는데 即 政府는 即時 八時間勞働法案의 議事를 進行시키고 八日로서 此 議事의 第二讀會를 開會하게 할 意향이다 「요ー크샤」의 鑛主等은 右의 決定에 驚愕하야 七日 政府에 對하야 爲若 政府로서 新提案을 不滿足하다고 認定하면 鑛主側은 敢히 此를 固執하지 안켓다고 하엿다더라

佛政府信任案

九日下院에提出?

佛國財政長官 「카이요」 氏로부터 提出한 政府信任案은 九日 下院에서 投票하기로 된 바 政府가 萬若 否決되면 政府는 即時 다시 信任을 得하려고 하는 前提라더라(巴里九日發)

葡國又復政變

「칼」氏의구데타成功

三頭政治로獨裁政治에

葡萄牙革命은 「카베사스」氏가 內閣總理가 되엿든바 「칼모나」 將軍과 「고메스」 「코스타」 將軍과의 三頭政治이든 바 「카베사스」 氏는 戰爭大臣 「고메스」 「코스타」 氏와 衝突한 結果 「칼모나」 將軍이 獨裁政治가 되엿다 하며 「고메스코스타」 氏는 臨時政府를 樹立하엿다더라

톰손氏比島着

在留米人重視

米國大統領 「쿨리지」 氏에게 比律賓 調査의 命을 受한 特使 「톰손」 氏는 九日 比島에 到着하엿다더라(馬尼拉九日發)

美國上流의 無盡藏한鐵鑛

日佛合同採掘?

佛領印度支那 政府에서 佛國大使를 通하야 交涉이 잇섯든 佛領印度의 鐵鑛調査는 日本의 海外鐵鑛資源을 開發하기 爲하야 鐵鑛技師를 派遣하야 調査한 結果 日本政府에 報告한 바 有望하다더라

英前內閣 顚覆原因

「지」氏의書翰 僞造犯逮捕

勞農政府의 秘密警察은 八日 國境에서 「졸기우스」 「도라케블스」 를 逮捕하야 莫斯科에 送致한 後 嚴重取調中이바 右는 伯林에서 「지노비에프」 氏 名義의 書翰을 僞造한 嫌疑者라더라(莫斯科八日發)

「세」河川航行 露蒙協定成立

勞農露國 「세렌가」 國營汽船所有 船舶의 蒙古河川航行에 關한 協定은 「우란바톨」에서 露蒙兩國의 調印을 了하엿다 「세렌가」 河水源地인 蒙古로 勞農國境을 通하야 「부리야트몽고리」 共和國을 流하야 「바이칼」 湖에 注入되는 것이며 右航行期限은 十個年이라더라

滿鐵對中東 貨物輸送協定

進捗하는貌樣

北滿貨物輸送協定은 中東滿鐵兩社間에 未成立이며 現在에 至한 바 其後 中東線幹部의 對滿鐵政策도 緩和하야 滿鐵에 對하야 運賃協定의 會商을 希望함으로 今年 內에 哈爾賓이나 大連에서 兩社의 代表者會議가 開始될 듯하며 八日 上東한 滿鐵大藏理事의 用務도 運賃協定 및 中東의 對滿鐵 運賃 政策에 對하야 滿鐵側의 意見을 求하라는 同時에 日本政府의 了解를 求하고저 하는 것이라더라

努力前進하면 될줄로압니다

朝鮮人에게一言

京城通過한留大使

勞農露國駐日大使 「코프」 氏는 豫定과 가치 九日 夜七時에 京城驛을 通過하야 北行하엿는데 今番길은 純全히 休暇로 가는 길인 故로 政治的 問題에 關하야는 못시 말하지 아니하엿다 露國駐日大使로 온 「코프」 氏와 等政治的 意味는 업다고 京城에 出迎한 本社記者에게 말하엿다 「카라한」과 會見한다는 것은 風說이오 아모데도 들니지 안코 直行하는 것이오 哈爾賓에서는 滯留하지 아니하고 妻子와 同行하야 滿洲로 가서 莫斯科 에 通過할 뿐이오 朝鮮은 來往에 處處에 보지 못하엿스니 感想을 말할 만한 것이 업거니와 朝鮮도 他國에 比하야 더 힘쓸 일이 만하다 그러나 努力前進하면 될 줄로 압니다 그 以上은 또 政治談이 되니까 다음 番으로 미룹시다」 同大使館 二等書記官 「올리」 氏가 代身하야 「中國의 某派를 露國이 援助한다 하지마는 그것은 精神上의 問題요 아직 物質的 或은 兵力으로 他國의 革命運動을 援助하기가지는 露國의 實力이 不許하는 바라」 하며 大使의 此行은 赴任後 一年만이오 歸任은 十一月頃이 될 듯하다고 하더라

◇寫眞 (右)留氏(左)살마舌氏(下)留氏署名

李石寨를襲擊

約三十名의馬賊團

撫順線 李石寨附近 中國部落에 九日 朝約三十名의 軍服을 着하고 步兵銃을 所持한 馬賊團이 出現하야 民家에 放火掠奪을 恣意로 하고 다시 附近部落을 襲한 後 奉天에 向하야 現地에 出動 中이며 中官憲은 嚴重警戒中이더라(奉天電)

松島事件益擴大

角南判事近近上京

床次氏審問結果

去七日 大阪地方裁判所 檢事局은 官其他 當路의 大官도 一次取調하기로 決하고 角南豫審判事는 豫定과 가치 一兩日中에 東上할 터이라 政友本黨總裁를 松島事件의 參考人으로 取調한 바 高見之通氏의 自白과 床次總裁의 申立에는 甚한 相違의 點이 잇서 兩氏의 對質訊問까지 行하엿스나 疑問은 解決치 못하고 畢竟 政友本黨의 會計狀態도 調査하리라는 情勢로 되엿스며 또 事件의 終結에는 若槻首相 川崎次官 其他 當路의 大官도 一次取調하여 依하든지 官吏의 戒飭並 綱紀肅淸에 關하야 訓令又는 聲明을 發할 意向이라더라(東京電)

綱紀廓淸關係

近近首相聲明

綱紀肅淸의 摽榜으로 出現한 若槻首相이 松島事件에 關하야 若干이라도 疑惑을 抱할 事件을 徹底的으로 調査하야 政府의 面目을 保할 것이라는 論議가 起하야 그 旨를 去八日 首相의 閣議席上에서 若槻首相과 井上鐵相과의 間에 仙石前鐵相이 靑木次官에게 對하야 辭職을 强要한 바이 問題는 이 關係方面에 不祥事가 되어 若槻首相에게 强硬히 談判하는 同時에 憲政會少壯派의 後援을 受하야 井上鐵相에게 運動한 바이 잇서 靑木次官이 辭意를 漏하엿다고 傳하는 바 其辭意는 豫算編成期에 際하야 不時의 政局混亂을 招來할 것이라 하야 關係方面의 深甚한 注意를 惹하게 되엿더라(東京電)

外務省新豫算

總百八十萬圓

日下審議中인 外務省新豫算은 來週內에 全部 査定한 後 二十日 外지에 大藏省에 廻附할 豫定인 바 總額은 百八十萬圓程度에 止하야 新規事業中에는 公使館新設은 업고 領事官二, 商務書記官三, 增加在外公館의 營繕費, 兒童敎育, 移民調査費 等은 決定事項으로 되엿더라

小兒保健所 設置要領

事業의範圍

保健衛生調査會의 乳兒及幼時死亡, 死亡率遞減方策에 關한 特別委員會는 九日 小兒保健所設置要領을 決定한 바 그 概要는 左와 如하더라(東京電)

◇醫師 小兒保健所의 醫師는 一定한 地域內의 姙産婦乳幼兒의 保健에 關한 敎養及宣傳을 當할 事

◇看護婦 醫師의 補助 牛乳供給에 際하야 此의 調理 其他 看護婦의 一般事務

◇牛乳의 供給 小兒保健所의 地域內 出產을 四百으로 하야 其約五「파센트」에 對하야 實費以下로 牛乳를 貸入하야 一錢에 供給할 事

◇保健所豫算 小兒保健所 一個所의 豫算總額 六千八百十二圓

軍縮會議基礎 採用된七決議

委員會六週間의所得

國際聯盟軍縮準備委員會는 六週間에 亘하야 開催된 바 軍縮會議基礎案으로 六日 左의 諸決議를 採用하엿다 即

一、陸海空의 三軍은 不可分의 關係에 잇슴으로 軍縮은 반다시 全體로서 討議할 事

一、制限은 平時에 잇서서의 兵員數에 對하야서만 適用할 事

一、化學的 製品又는 武器를 使用하는 戰爭을 完全히 一掃할 事

一、陸軍軍縮은 平時의 兵員數를 基礎로 하고 兵役의 期間에 使用하는 武器等에 對하야 行할 事 但 訓練을 受한 豫備兵, 貯藏한 武器에 對하야서도 考慮할 事

一、空軍軍縮은 飛行機의 總馬力 總數 飛行船의 總容積 又는 操縱者의 總數로 하야 行할 事 但 操縱者의 總數에 對하야서도 考慮할 事

一、軍費豫算은 軍縮又는 比較의 實際的 基礎로 아니할 事

等이며 同委員會는 「軍備」 中에는 左의 件을 包含한다고 規定하엿다

一、平時의 兵員數

二、戰爭에 對하야 準備된 兵力(假令 訓練을 受한 豫備兵, 貯藏 兵器와 如한 것)

三、右에 列記한 以外의 武器即 結局은 戰鬪力이 될 만한 武器及工業動員에 依하야 軍器로 될 者

右에 對하야 英, 米, 「알젠틴」, 智利의 四個國은 少數意見 報告로 海軍軍縮은 艦種 平時에 依한 噸數制限에 依하야 可能하다고 發表하엿스며 또 同委員會는 八月二日 再開할 터이라 民間飛行과 의 區別, 防禦的 軍備와 攻擊的 軍備와의 差別 如何等의 殘餘問題를 討議할 터이라더라(제네바 特電)

二十萬勞農軍 外國人으로組織

獨諸紙一齊히報道

獨逸各新聞은 「소비엣트」 政府는 方今 人員二十萬人 六個大隊로 된 外國人勞農軍人團을 組織하엿다고 報하더라(스트라스부르크 九日發)

國軍三段戰略

直奉聯合軍에對하야

國民軍은 聯合軍에 對하야 三段의 戰略을 取한 바 即 第一段은 奉直聯合軍의 南口總攻擊 以前에 山西를 奪取하려 하엿스나 失敗에 終하엿슴으로 第二段策으로 京綏線에 沿하야 一氣로 南口로부터 北京을 襲擊할 積極的 策戰인데 此에 失敗하면 南口에 少數의 部隊를 殘하고 主力을 宣化 張家口에 移하야 充分한 戰鬪準備를 하야 聯合軍이 南口를 突破하고 宣化에 殺到함을 邀擊하려는 것으로 同地方에 大規模의 防禦陣地를 敷하더라(奉天電)

赤露兵六萬

日下包頭를 中心으로 附近一帶에 赤露及蒙古兵이 散在하야 義勇隊라 稱하고 盛히 聯合軍에 對抗的 態度를 取하는 바 그 數는 六萬이라고 稱하더라(奉天電)

國軍討伐費에 窮迫한中政府

中國政府는 顧財政總長就任 以來 關稅收入等 二百萬元에 及하나 이를 軍費에 使用하지 못함으로 國軍討伐費에 窮하야 八方으로 苦心中이더라(北京九日發)

極東라듸오通信 五個年完成計畫

建設費二百三十餘萬留

哈府勞農極東連絡部는 極東路領에 一個年中 大部分 中央과의 連絡을 絕하야 現在의 郵便電信이 充分히 需要를 充하지 못함에 鑑하야 極東에 「라듸오」 通信을 建設하되 今後 五個年 間에 完成할 터인 바 建設費 二百三十五萬九千留를 支出할 터인데 其中 本年은 三十一萬二千留로 하야 「캄차카」 의 「페」 港, 「라듸오」 의 改造, 「아나도일」 無電의 修繕, 오호츠크」 의 無線에 對한 施設을 하고 此 非公式으로 兩者間에 大體의 諒解를 하여 둘 것이라고 希望하는 貌樣이더라(東京電)

스며 一方 中東側은 最近 發成한 洮昂線의 關係도 잇서 此等을 承認하자고 主張하고 東行線橫斷으로 서 齊洮의 準備로 할 듯하다 但 洮昂線 問題는 滿鐵에 直接 關係는 업스나 非公式으로 兩者間에 大體의 諒解를 하여 둘 것이라고 希望하는 貌樣이더라(東京電)

旅券査證廢止

日米商議成立

日米兩國間에 往來交通을 便利케 하기 爲하야 今回 兩國政府間에는 旅券査證廢止의 相談가 成立하야 正式으로 公文을 交換한 바 即 旅券 査證免除의 範圍는 左와 如하더라

一、要務又는 觀光의 目的으로 一時的 旅行者로서 入國하는 者

二、繼續的으로 相對國의 領土를 通過하야 他의 外國에 赴하는 者

三、商人으로서 商業에 從事하기 爲하야 入國하는 者

四、兩國中 他一國의 一地方에서 그 接續地를 通過하고 更히 其國의 領土에 入하는 者

河의 上流 「모- 골」 에서 調査 中 最近 貿地踏査를 終了한 日의 商工省에 入電이 잇는 바 該鑛脈의 埋藏은 推約七千萬噸에 上하야 頗히 有望하며 調査隊는 東京地方을 調査後 八月中에 歸國할 터이라는데 近近 日佛間에 依하야 採鑛에 着手할 듯 하더라(東京電)

燃料調査委員會

設置키로決定

燃料調査委員會는 九日 閣議에서 設置하기로 決定한 바 會長으로 片岡商相 委員으로는 商工, 農林, 海軍 의 各省次官, 局長, 其他를 任命할 터이라더라(東京電)

政局混亂 惹起가憂慮

鐵省의內紛

井上鐵相 佐竹政務次官 就任 以來 靑木 鐵道次官 問題는 紛紜을 來하야 一時 저우 平穩裡에 落着한 感이 잇든 바 七月의 大異動期 接近과 共히 佐竹政務次官은 省內 人事를 自己의 하고 십흔 대로 하려 하야 何等 不安을 感하는 바 憲政會에서는 與黨으로서 此事件과 進行에 作하야 不安을 感하는 바 어 此 한 關係가 잇지 아니한가 하는 疑惑을 抱할 憂慮가 잇슬 뿐 아니라 ...

海軍省新豫算

新規要求할것

海軍省은 九日 第一次 豫算省議를 開하고 各局 提出의 槪算에 對하야 審議한 바 更히 數次 省議를 開하고 決定할 터이며 또 明年度 新規要求는 左와 如하다더라(東京電)

一、補助艦建造年度割 二千萬圓
一、新艦船維持費 千三百萬圓
一、航空隊二隊半維持費及艦載飛行機維持費 三百萬圓
一、敎育改善費增加 百萬圓
一、給與改善費 百萬圓
一、醫療費增加 二百萬圓
一、陸上無電改造擴張及維持費 百二十萬圓
一、新兵器採用費 二千萬圓
一、艦船特定修理費 三百萬圓
一、大演習費 五百萬圓
一、重油 「탕크」 增設費 五十萬圓
一、鎭海油田調査費 五十萬圓
一、官衙學校移轉費 百萬圓

神宮競技 學生參加問題

文省은默認

內務文部兩省의 感情의 衝突로 無端히 神宮競技에 文部省이 學生의 出場을 拒絕한 以來 紛糾를 惹하든 同競技問題는 其後 民間 各種 團體의 諒解 運動과 共히 兩省도 漸次 確實한 妥協點을 發見하야 問題 解決하기로 된 바 即 今年度 神宮競技는 從來와 如히 內務省主催로 하고 文部省은 學生의 出場을 默認하기로 되엿스며 將來는 一般 體育 運動界의 統一 機關을 造하야 此機關 下에 神宮競技會를 開하기로 되엿 다더라(東京電)

事業家等의 資金問題와

總督府의對策

產米增殖計劃 三十五萬町步의 土地改良에 要하는 三億三百萬圓의 事業資金中 三千九百萬圓의 資金은 事業家의 調達로 되엿는 바 此 金額에 對하야서는 果然 調達할 수 잇슬는지 當局도 疑問에 부치는 바이며 萬若 不調達로 終한 境遇에는 積의 改良에 支障을 來할 터임으로 總督府는 此 對策으로 改良確定인 灌漑改善 十八萬五千町步 地目變換 九萬町步 開墾干拓 七萬五千町步 中 開墾干拓의 工事費를 地目變換 其他로 改替하야 近 接合할 方針이라더라

土地改良 新規要求

約十二萬圓

總督府는 土地改良事業을 爲하야 本年度 京畿, 慶南, 咸南, 全北, 黃海, 平南, 平北의 七道에 技師 一名式을 配置한 바 來年度에는 殘餘 六道에 對하야 技師 一名式과 全道에 技手 一名 雇員 一名式을 配置할 豫算 約十二萬圓을 要求하야 第一期 充實計劃을 終할 터이며 更히 指導獎勵員을 增設할 必要가 잇서 土地改良局 新設의 經費 約五萬圓과 共히 新規要求를 할 터이라더라

兩局의葛藤

低資貸付問題

農事改良 低資貸付 方針에 就하야는 近近 發表할 터인 바 目下 財務局及殖產局과 意見을 달니하는 點은 耕牛貸金 貸付에 對하야 財務局은 金融組合에도 金融組合의 使命을 不拘하고 殖產局은 產業組合에 一任하라 主張하는 것이라 畜產組合의 金融組合의 加入如何가 決定되면 一致하야 貸出이 開始되리라더라

漁業稅令施行

鴨綠江沿岸에

奉天省長은 鴨綠江及渾河의 流域 各縣에 漁業稅令을 公布하야 實施하기로 한 바 右는 漁業者의 取締와 徵稅를 行키 爲하야 目下 江岸에 漁業者를 調査中인 바 今後는 官憲의 發給한 執照를 所持치 안는 者 以外는 漁撈를 禁止할 터이라더라

國境守備

二守備隊增設

日下 東京 陸軍省에서 審議中인 國境守備隊 配置計畫案에 就하야 부 는 大體 順調로 進行하야 朝鮮軍의 作成 原案을 承認할 貌樣인 바 原案은 現在의 五守備隊에 二守備隊를 增하야 七守備隊로 하려 하는 것으로 現在의 守備隊는

圖們江岸(十九師團)
第一守備隊(會寧以北) 第七十六聯隊
第二守備隊(鏡城、茂山、會寧) 第七十五聯隊
第三守備隊(惠山鎭) 第七十四聯隊
鴨綠江岸(第二十師團)
第一守備隊(江界、中江鎭、滿浦鎭、渭原、楚山) 第七十七聯隊
第二守備隊(新義州、昌城、碧潼) 第七十八聯隊

임을 軍의 原案에 依하면 圖們江岸에 잇서 第一守備隊 現狀 維持 第二 守備隊를 鏡城 慶源으로 하야 七十五聯隊로 하고 茂山을 獨立식혀 第三守備隊로 하야 七十三聯隊에서 駐屯식히고 惠山鎭을 第四守備隊로 하야 現在와 如히 七十四聯隊에서 分派하기로 하고 鴨綠江岸에 中江鎭 第一守備隊를 江界에 置하야 中江鎭, 滿浦鎭에 限하야 楚山及 第二守備隊로 하고 第二守備隊의 碧潼 以外지를 第三守備隊로 하고 七十七聯隊에서 分派하야 現在의 第一守備隊의 昌城以南을 新義州로 本部를 置하고 第三守備隊로 新義州로 本部를 置하고 此의 兵員은 平時高低等의 正規定員의 編成을 度外視하고 現在 二千百餘名이 山梨案에 依한 緊少 約千百餘名이엿스나 大略 同數인 三千百餘名으로 增加하려 함인 으로 此에 要하는 經常費의 膨脹은 四十萬圓餘이더라

辭令

郡守 須藤 市治
遞信技師 小島 金次
依願免職(各通)

消息

▲金起田氏(開闢主幹)社務를 帶하고 約一個月間 豫定으로 九日朝 北京方面에 出張

橫說竪說

◇張作霖氏는 吳佩孚氏에게 對하야, 五省巡閱使되기를, 慫慂하엿다는바, 大總統은 自己가 하겟다는 酬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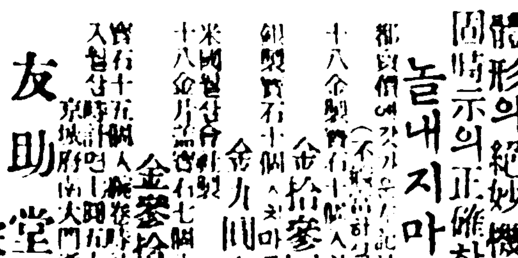
◇吳氏는 그 眞意를 알엇든지, 斷然拒絕하엿다고, 亦是大總統이 아니면, 안한다는 말인가!

◇그뿐아니라, 國軍討伐吳張兩軍은, 戰後最大의 發言權을 得키 爲하야, 競爭的으로 策戰한다고, 馮氏가 企得하는, 張吳의 離間도, 不遠한 將來에 可見

勿驚 時機난 只今

여러분의 時計店인 弊店은 精形의 絶妙한 機械의 堅固한 時示의 正確한 時計를 놀내지 마시옵소서

和金側 十八金側 金拾參圓八拾錢也
銀製側 金九圓七拾五錢也
米國製 金參拾七圓五拾錢也
入學生時計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友助堂時計舖 主 宋在榮 謹告
振替京城一八九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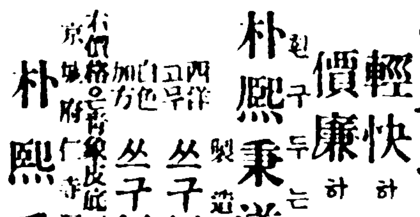
梅毒淋疾의 中國療法

中國의醫藥은東洋의醫藥界之元祖로그의偉效는現今歐米各國에서지大歡迎을밧게되엿슴니다 自古로專門大家의賢人達士가繼承하야出世하엿스고 따라서遺傳의神秘方과 同仁의劑가如山하야 能히起死回生하며 ...

中國安東縣四番通六丁目四番地
華興號 啓

開城名產 白菜種子 販賣
◎本園所出特選種子를 一千斗限하고 本園에서 販賣하옵
◎本種上品 (五升入) 一斗 金貳圓八拾錢
◎代金引換註文은 (送料先金) 朝鮮開城東本町四〇三番地 開城名產白菜種子 廣開城園

여름환신은 어데로?
輕快하고 堅實하며
價廉하고 美術的인
구두는
朴熙秉洋靴店에서
製造販賣합니다
西洋 쓰구 短靴 四圓五拾錢
白色 쓰구 短靴 三圓七拾錢
價格은 皆革皮에 따라 相當이올시다
京城府仁寺洞
朴熙秉洋靴店



遞信省 鐵道省 朝鮮總督府 指定工場
登錄商標 EO
라디오用
岡田乾電池
東京 中川
岡田電氣商會

ClibPDF - www.fastio.com

◇너도나도시원한물 ‖석빙압박골물터에서‖

斷不容貸한人道의罪惡 法權의處置는如何

(二) —죄상명백한사람을불긔소햇다고 피해자로부터는검사국에탄원서—

◇本社高特派員調査

光州事件眞相

그날밤량안순은의분(義憤)에쌓는 동리부녀들의 구호를바더 여러 사람에게 떠들니어 자긔집으로 도라가서는 역시그부녀들의 동정과 후원으로그이튿날인 신체임에야 겨우엇던의사에게서 치료이개월을 요한다는(지금까지 의연히 중태로치료를 밧는중에 잇지만)진단서와고소장을 지여 가지고 그날로곳광주 경찰서에 고소를 내고하엿던것이나 광주서에서는 그몃날후부터 사건을 취조하기 시작하야 여러증인들에대한조사며 또는 십여일에 피의자김강진 문태뎡진순 국태련 서복음동서에 류치식히고사실을 취조하야 송길수입는 일부의 죄상만은확실히 증거가 들어낫는데 동서에서는 전긔김강진만 그대로구속하여두고 그외네명은 류치식혓든지 사오일만에 전부내여보내여 불구속한대로 그취조서류만을 김강진과 함께 광주디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기엇섯다 동국에서는 김강진도역시너머오는그날로서방송하야전부 불구속으로 되고말엇는데이제이사건에대한경찰의의견서를보면

警察調書

경찰이조사검뎡한 의견서는여차

◇意見書◇

光州郡光州面城底里 被疑者 金康津 二五歲
光州郡光州面須奇里町八〇 被疑者 文太 三一歲
光州郡光州面須奇里町 被疑者 鄭貞順 二七歲
光州郡光州面須奇里町八 被疑者 柳珠蓮 三二歲
同須奇里町 被疑者 金康津房雇女 徐福녀 一五歲

(前略)

犯罪事實 被疑者康津은日以가部外光州郡光州面城底里 및利根과表…다는事實을告訴人인同面須奇里 同人의左右腿部及左右頰部와或町梁安順으로부터同人이相被疑者는腹部等을毆打하야別紙診斷書者인文太、鄭貞順、柳珠蓮等에게 와가든向二個月의治療를要할傷서聞知하엿다는말을듯고如斯한 害를與하엿슬뿐不當타그結果安事實이업섯슴에도不拘하고如斯한 順의胎兒를死亡케하야自然分娩한理由로所聞이낫는가하야文太 期에서約四個月前인十月一日에鄭貞順、柳珠蓮等에게詰問한즉 流産되게하엿나니 文、鄭、柳等은그것은何等安順한에서聞知한것으로他人에게서聞知한배안이며또한그것을他人에게말한일은업노라그事實대로主張함으로各關係人을對質식히지안이하고는그가말을한責任者를알수가업다는理由아래에서大正十四年九月十五日正午頃에文太、鄭貞順、柳珠蓮及告訴人安順을自宅溫突內에불너다노코同人等에對하야어느便말이事實이냐고詰責하엿던바安順은沈默하고잇슴으로이것은그의狂言이라하고各히憤慨하야同時同所에서安順이가妊娠中임에도不拘하고事情을알지못하면서 [illegible]

被疑者徐福녀은相被疑者金康津의雇女인바前記와흥일(?)에安順의脚部를잡아다리고或은胸部를咬傷하엿다는等의告訴이나被疑者福녀은全然事實을否認할뿐아니라該當證憑을엇지못하엿다 右被疑者康津、文太、眞順、珠蓮의傷害의行爲는刑法第二百四條에該當하는犯罪로써모다起訴、墮胎의行爲는犯意가업섯고被疑者福녀의行爲는刑法第二百四條의犯罪의證憑不充分할뿐아니라責任年齡에達하지못하엿슴으로이것들은不起訴의處分이相當하다고思料함

大正十四年十月十四日
光州警察署司法警察官事務取扱 道巡査 金貞澤
光州地方法院檢事局
平山檢事正 殿

◇ [illegible] 량안순

罪狀이明白타고 檢事局에嘆願

—죄상이명백한데불긔소햇다고 피해자측에서는검사국에탄원—

不起訴處分의顚末

그리고경찰의 조서중 가해자김강진과 피해자량안순은 오래전부터 사이가친밀하야 매우가깝게지내오던터이라는김강진의말만을 보아도당시 량안순이가임신중에 이것을몰낫슬리가 업슬것이나 다대에대하야는범치의사가업섯다하엿고 한피의자들에대한수행조사에도 그녀사다섯명이극단의잔인성을 범하야불법부도한폭행을하엿슴에도불구하고모다싱겁이온순히그남의의생명을상한다고하엿는데나시이사건이검사국으로 너머간뒤으로는 오래동안 사건을실려가다가 그것이 검사국으로너머 간지일곱달만인 금년오월십이일에야 겨우전긔 김강진(金康津)만오즉상해죄로긔소되고그외네명의 녀사중 분대、뎡진순、국태련는은경찰의의견서에누죄상이 명백히 들어나잇스나불긔소의 처분을나리엇섯다 이제김강진에 대한검사의 긔소사실을보면

金康津公判請求
犯罪事實
司法警察官事務取扱意見書所載事實

그한편으로 자혜의원 에서생사(生산)의사이를방하하며치료를 밧고잇든 량안순은 검사국으로부터 김강진만긔소하고 그외네명은불긔소의 처분을 하엿다는 엽서(葉書)의통지를밧고너머긔가막히어 병세가더욱 위독하여졋섯다하며 그와동시에 『죄상명백한사람들을 불긔소를하엿다』고검사국에 탄원까지도 한일이 잇섯다한다(계속)

辯護士는無罪主張 檢事는無期求刑

—만텰연선친일파살해사건공판 검사는교사죄로무긔징역구형—

【親日派殺害事件申明球】

요전에만텰연선(滿鐵沿線)에서 일어낫던친일파살해사건(親日派殺害事件)의 데이회공판이지난칠일오후 두시경에 관동텽디방법원데일호법뎡(關東廳地方法院第一號法廷)에서 열리엿섯는대그중 이번사건에 관련되야친일파토벌교사범(親日派討伐敎唆犯)인신명구(申明球)에게검사로부터 무긔징역의 구형이잇섯고재등변호사(齋藤辯護士)로부터는 신명구에 대하야는하등의범죄사실을 성립할만한 증거가업다는 변론으로 무죄를주당하엿섯는데 재판당으로 부터이사건의 언도는 오는이십일에 하기로선언하고동오후네시경에 폐뎡하엿다더라(대련)

小兒二名溺死

더수지에서목욕하다

평남강서군쌍룡면림성리(平南江西郡雙龍面林城里) 오백사십일번디김상순(金尙淳)의손자뎡홍(貞弘)(八)과동리 오백삽십칠번디장진렴(張鎭廉)의둘재아들문극(文極)(八)두아희는 지난이일오후한시경에 그동리 사십삼번디압헤잇는깁히약오척가량되는더수지(貯水池)에서여러동리아희들과 물속에드러가 자맥질을하다가깁흔곳에빠저서마츰내헤여나오지못하고 잇든것을 동리사람들이 달려가서 건저노코인공호흡법으로응급치료를하엿스나 소생하지 못하고 죽엇다더라(평양)

多數한警官과 三時間을激戰

—군자금을청구타가불응한다고 주인을란타후경관과충화교전—

義州○○團續報

작보‖지난칠일오전두시쯤하야의주군광평면 상팡동(義州郡廣坪面上廣洞)밀림속(密林裡)에서중국모처에 근거를둔 조선○○단(○○團)원某명과경관대(警官隊)십팔명과의일대격전이이러나약혀시간동안아니총화를교환하엿든바 ○○단원은 이명의사상자를내엇다는데 이제그자세한 자최를 탐문한바에의하면 그들은 모다누런군복(黃色軍服)을 입고 각각로국식 장총(長銃)과「모젤」식권총등을 휴대하고 지난 사일 하오여덟시경에 의주군 고녕삭면 영산동(古寧朔面永山洞)에 낫타나 그곳부호김모(金某)의집에침입하야 군자금이천원을 청구하엿든바 이에불응한다하야 진긔김모를무수히란타하며 일변 안방으로달녀들어 현금이백 십원과과다 재물등을모아가지고 즉시자최를감초앗다는바 이급보를접한의주경찰서에서는 각처에경게망을느려노코동서장과 목촌(木村)경부이하십여명의경관대는사건에발원디인 영산동에출장하야 그들의 도망한 방면을수문하고 곳뒤를니여 추격하야권괴 상팡동에서 맛나게됨에칭선부보이하류명의응원을엇더가지고권긔와가치격전하야그렁케두진경찰관주재소원서강(西岡)경명의사상자를 내이는동시 로국장총한자루『모젤』식권총한자루괴타 여러가지 문서까지압수되엿다는데 지난륙일에도 광평면윤재하(尹載河)의집에○○단이드러가약속한 금전을청구한 일이잇섯다는데 그것도 아마그들인듯하다더라(의주)

初音町空家에서 疑問의白骨發見

소관본뎡서에서활동을개시

시내화텬뎡(和泉町)일백십륙번디에 사는삼산(杉山)이라는 일본사람은 재작구일오후 일곱시경에셰를내여주엇다가 그동안 얼마간뷔여 두엇든시내 초음뎡(初音町)십륙번디 집을 소제하다가 사람의백골하나를 발견하고 즉시본뎡서(本町署)에그사유를보고하엿슴으로동서에서는곤긔에그집에서살든사람이버리고간것이라하야 각방면으로수색을하는중인데 하여간 의문의백골인것은 사실임으로 압흐로무슨중대한 범죄가 발각될는지도모르는다더라

自働車가轢人

지난팔일오후네시반경에마산자동차주식회사(馬山自働車株式會社)자동차이백사십칠호가마산을떠나 진주(晋州)를가든길에함안군산인면송뎡리(咸安郡山仁面松汀里)에서 그동리에사는 도대여(都大汝)의처리씨(李氏)를치여 매우위중하다는데방금함안읍내 단우(丹羽)의원에입원치료한다

六月事件의十七人 明日에는起訴될듯

치안유지법과출판법위반 其中四五人은釋放?

『륙월사건』과『데이차공산당사건』등으로 목하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여잇는 권오설(權五卨)이하 열여섯명에대하여는 그동안검사국의취조가대테로일단락을고하게되엿고 또한검사국구류기간이 명십이일로써 만긔가됨으로 십이일중에는 검사국의태도를결뎡하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과 출판법위반(出版違反)등으로 (그중에는범인은의도잇슴(合友))긔소를하야 동법원공판에 붓칠모양인데 엇지면예심을 청구하게될듯도하고 그중에모모등사오인은 무사히 석방될듯도하더라

六十萬歲事件 廿八日公判

학생열한명

륙월십일(인산당일)에학생들이중심으로 태극긔를둘고 조선○○만세를 고창하며 다수한격문서등을 산포한사건의 주모자로 녹하경성디방법원 공판에 부터잇는 연희뎐문학교학생 리병립(李炳立)외 열명에대한 제령위반(制令違反) 금출판위반(出版違反)사건의공판은 강등(江藤)판사의 단독심리아래 리견(里見)검사의립회로 금월이십팔일 오전부터 동법원 데륙호(六號)법뎡에서 개뎡하게되엿다더라

押送된義烈團

일본당긔로압송된의렬단원 擧事準備中에被逮

리보‖중국상해(上海)일본총령사관경찰의손에 피착되여 당긔(長崎)디방재판소에압송된의렬단원(義烈團員) 김광손(金光孫)(二三)은얼마전에상해 승뎐려관(勝田旅館)압헤서일본탐뎡을 총으로쏘아죽이고또상해(上海)일본령사관을폭란으로깨치부시라고게획하든최병선(崔炳璿)당진원(張鎭元)등의공범으로관명되엿다는데 그는또다시 지난고순종효황데의 국장때에 인산날을긔회로경성에잠입하야모중대사건을 이르키고저 상해에서폭탄을준비하든중에그와갓치원경에게피착된것이라더라(모처정보)

覆船溺死

조개잡다가

평남강서군 적송면석오리(江西郡赤松面石五里) 사십오번디차석지(車錫芝)(三五)는지난륙월이십팔일오후 두시삼십분경에 동리최형진(崔亨晋)이란사람과술을먹고동리가마포(駕馬浦)연안에나가서 조개를잡고자 조고만배를타고 압바다에 나갓다가갑작히회오리 바람을맛나 배가뎐복되여 최형진은 헤염을칠줄알든까닭에 목숨을건지고 차석지는헤엄칠줄도 몰으고 술도조금취햇든까닭으로 나오지 못하고마참내세상을떠낫다더라(평양)

學務當局의酷令과 ‖學生의處罰問題‖

一般公眼에빗친批評은如何 【三】

當局彈劾

탄핵문을보내 ◇無名會에서

무명회(無名會)에서 동사건에대하야 학무당국과조선위정자의수뇌를 탄핵하기위하야팔일오후네시에 시내주양칭년회관에서 림시집행위원회를열고 다음과가든의미의결의문을 작성하야일반의여론을 환기하고 렬녀한탄핵운동은 계속하리라더라

一、금번사건은 적어도민족의식사회의식의 일반영(反影)인즉 그관계자에게현행법규에의한처벌을 과하는것은 가하나 긔소유예나 불긔소로 방면된 학생에게대한학무당국의 가혹한 처치는 장래가 유망한조선청년을 역경에빠지게 하고 도리여 그사상을격화케하는것

二、현재조선민심이비록표면상으로평온하다고 당국자들은칭명하나 실상그내면에큰압류가흥너잇는데 금번의처치에대하야일반민중은 감정이항분되아 사상의격변을 초치케하며일반사회뎍으로 회의를조상케하는것

三、경찰당국과사법당국에서는 소위『관대한처치』를 취하야민심의안뎡을 도모하는데도불구하고학무당국에서 그와갓치행정뎍제재를 가하는것은일종복수심의발로로 볼수잇는것인즉 이것은통치당국자들의 공평치못한심사를엿볼수잇는것』

[illegible]

◇휴지통

▲지난구일오후에 엇더한양복입은 작자가평양부산수뎡 관긔라는 일본인집에사람업는틈을타서들어가▲그집장을열고 주인의 의복가지를 삼백여원어치를 끄집어내여 변변스럽게 주인이쓰던려행용추렁크에집어넛코 ▲자긔가입엇던『알바가』양복을벗고주인의것은 양복을시침떼고 가라입으려고 한참밧부게 날뛰다가▲밧게나갓다 집으로 들어간그집주인의 마누라를보고 도적하여노앗던 의복가지도 되는대로내여버리고 바지고춤을 한손으로 삽고『어비야』소리를질으고뒤ㅅ문으로 도망하엿다고 ▲그서슬에한참동안 얼빠젓던 주인마누라는 겨우정신을차리여 경찰에 호소를하엿스나범인의종적은알수가업다고

모기장

◉日絹之部
長六尺 廣三尺半 二圓九十錢
長六尺半 廣四尺半 三圓五十錢
長六尺 廣六尺 四圓
長七尺 廣六尺 四圓五十錢
長八尺 廣六尺半 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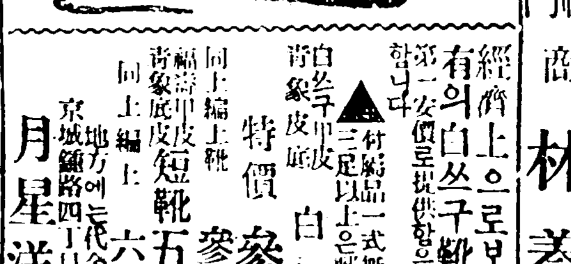
◉西絹之部
長六尺 廣六尺 八圓三十錢
長七尺 廣六尺 九圓五十錢

◉生絹之部
四 四 七圓
四 五 八圓五十錢
四 六 十圓

◉別廣生絹之部
長六尺七寸 廣六尺七寸 甲紗造線 十六圓 一件
長十尺 廣六尺七寸 甲紗造線 二十一圓 一件
長六尺七寸 廣六尺七寸 上品甲紗 廿二圓 一件
長十尺 廣六尺七寸 上品甲紗 卅二圓 一件

本年度에는特히品質이堅固하고巧妙하게製作하엿사오니即注使用하시옵소서
京城府公平洞二十八番地
蚊帳專門商 林養奎

夏節用白쓰子靴大宣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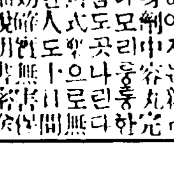


經濟上으로보아朝鮮初有의白쓰子靴最優良品
第一安價로提供함은月星洋靴에限함니다
▲付屬品一式無代進呈 三足以上은郵料自擔▼
白쓰子甲皮 靑象皮底 白短靴 特價參圓
同上編上靴 參圓五十錢
福壽甲皮 靑象底皮 短靴五圓
同上編上 六圓
地方에는代金引換함
京城鐘路四丁目勸商場內
月星洋靴部

梅毒?
신구병의백약이무효하며 년갱발되는환자에게 본원제난한제복용이내의거 근되아평생갱발치안니할 약가상품십원、완고용밀 한제상십원、송료유십오전

淋疾?
남녀간림질에백약이무효한 난치의고질이라도본원비제 의불근가루로쓰면서과일이 십분의소변으로래출하고 부정한것시연고거근되는 아갱발치안는세게뎍선약을 쏘보시요약가상품칠원 고용별품십삼원、송료六십 오진○만일의본원제를쓰시 조금이라도보혀어데가 지라도무효하면배상하오 싱명하오니의로마치시고 옹소서
京城府禮智洞二十五
內外科及各科 濟衆院
振替京城一五二

男女 瘦身劑



▲몸에살이업시 즉하야지는新式 瘦身劑中容丸完成 아모리뚱뚱한사람이라도곳하 試驗하라반드시効驗이잇다
東京小石川表町四十五
鶴岡藥品部

ダイヤ焼酎大賣出

實수우리燒酎界에自熱的稱讚을博하는中입니다
品質優良‖風味上等
度數正確‖桝目豊富
荷造完全

‖年産額二十萬石‖의

登錄商標
다이야
ダイヤ焼酎

要飮하시옵소서
요사히新品이多數히到着하엿슴니다
現品은各地의信用잇는商店에準備되엿슴니다사실때는必히다이야(ダイヤ)燒酎를指命하야주시옵
盛夏一日의勤務疲勞를慰함에는다이야(ダイヤ)燒酎一杯에限합니다
醸造元 下關市觀音崎町 大日本酒類醸造株式會社
發賣元 京城府南大門通り二丁目 株式會社鈴木商店京城支店燒酎部
販賣店 京城府南大門通り四丁目 德昌洋行

色白하여지는
美活石鹼
메활비누

本舖 大阪 吉田久四郎商店

일츅조션 소리판
『소리판』의上上品은
日本蓄音器商會製
京城黃金町一丁目
月刊유성긔雜誌
에소리판目錄이잇나니다
見本無料進呈

모양잇고질긴고무신은
商標 (平) 상평
常平고무
京城黃金町一丁目一八 常平고무工業社
販賣部 京城西大門町一丁目

잘못된화장법(三)

아름다워지는근본은 무엇보다도건강이다

미국 써스틘,죤스튼 녀사

…… 아외에놀려나갈때에화장하는것은반대합니다 땀이나며얼굴에 어가집니다 그것보다는얼굴에 「파우더」를바르면 그만이외다 너머만히바려도 아니되고바른뒤에는다른솜을가지고 떠러버릴것이외다 「파우더」바르는솜을부심으로 더러운것을쓰는이가 만습니다 미균이만히부튼곤지감이러던가 그밧게인지가변호가방속에 얼굴에닷는솜을하부로두는것을볼수잇슴니다

━분을바를때는 빗이조화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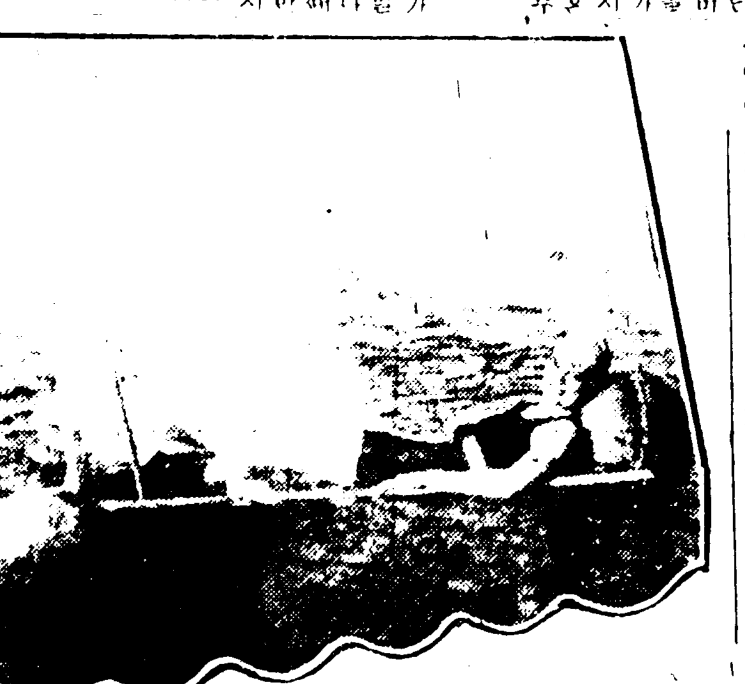
분바르는데는여러가지빗이가잇습니다 보통녀자들은 흰빗라색채의조화를 생각치못합니다 가령엇던녀자는 흰옷을입을때는분을만히바름니다 나는그바메로흰옷입는날은 분을바르지안슴니다 흰옷에분을만히바르면얼골과목과 옷이한빗이되어버립니다 진주를목에걸때에도분을바르지 안어야흰구슬파분은살이 더조가됩니다 녀자는대개분을 만히바릅니다 ……

━자연미를 가리지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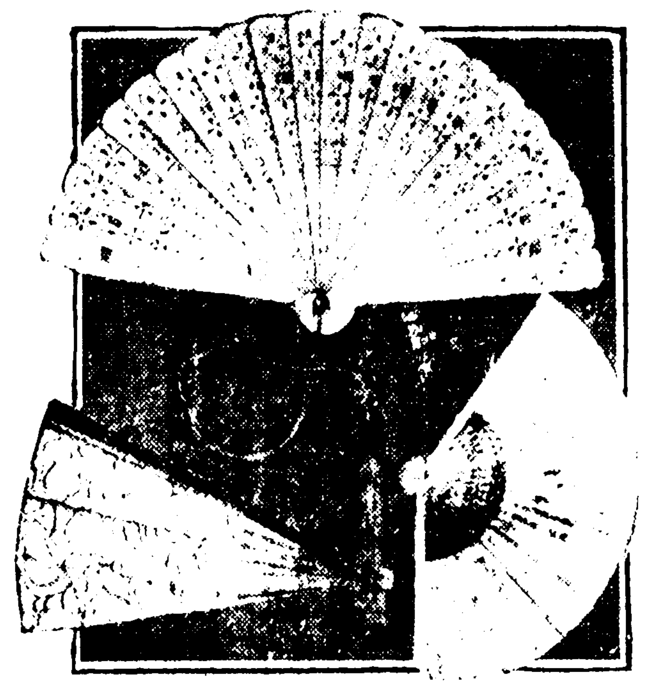
「코가버족버족하니 엇더케하면고치겟슴니까」 얼골에 여러가지들이 써금밧는다 그것을고치랴는 무엇입니까 …… 그것을 가리려고합니다 …… 예쁘게하고보기조케하여야 …… 외다

직업부인과 혼인안하는리유

동경사회국(東京社會局)직업부인상담소(職業婦人相談所)에서남자들이결혼을하는 업부인을싫어하는리유를조사하엿더니 「직업부인은 본고유의녀자다운 아름다움이업다」는것과 「남자들 사이에신뢰성을자기만 아니아는사람」이라고합니다



오·다우셴는진에서풍범선(風帆船)경주에일등한김맨린양과 그의풍범선



가뎡고문
담임에게

시는동아일보가뎡고문란을맛 흔중히녀이는 일독자이올시다 습훔에차인가뎡은 평화속으로 인도하는서광인주아옵고 그란을존중히녁입니다 그런대칠월이일그란에「아히는속이백팔십일만에해산해요」라는 효자동 일문생의답을보고 종래에녀러담보담 좀부족한답으로생각이됩니다 의학자의말을듯건대해산이일르면 이백사십일만에는흐면 삼백이삽십일인데 그중간을취하여 이백팔십일임신계속일수라고 가뎡을하고지내보나 이백팔십일만에해산하는것이다수를넘하나 녀자데질에따라조만의차이가 심하게나는례도잇다합니다 그럼으로해답에 이례외에말슴하엿스면 조흘줄압니다 만일남편이오래동안집을떠낫다가도라온지 이백사오십일만이라든지 이백칠십일만에해산한부인이이잇다하면 그남편에게 의심을줄것갓고또효자동분생도 례외의조산을하여 그남편이 이백팔십일을주장하면서 랭정한태도로변하는것을근심하여무리보것이라면 그답이매우섭섭한답이라고 생각되여입언을드리나이다 (동경일독자)

동경일독자에게

본란을사랑하사잘못되엿다고 생각하시는바를 가라처주심을 길히감사히녁이나이다 의학상으로보아서 아히는이백팔십일만에 나오는것이 생리뎍입니다(이삼사일의차이는 잇지마는)만일십여일식일쭉난다고만해도 그것은병뎍이오일즉나흔니만치아히의 발육은불완전하니다 그럼으로이백사십일에나오는 아히가잇다고하면반듯이썩불완전하며 살기가썩어려울것이올시다 그리고그아희가그러케 일즉이나온병뎍원인가랑태모가 너머첫다든지열병에걸녓다든지 기타무슨병에걸려이잇슬것이올시다

효자동 일문생이 만일병뎍으로 이백팔십일보다일즉이이백사십일이나 오십일만에해산을한다하면 그러케조산이될병뎍원인이잇슬것이요 또어린아히가발육이 불완전하여달못찻다는것을 증명할것이니 거기대하야는 넘녀할필요가업슬가합니다(가뎡고문담임긔자)

입분부채

부인네들이 녀름에가지고다니는 부채는각각그사람의 성질을나타내인다 엇던이는손가락치보다도 더적은부채를가지고 …… 엇던사람은 사내부채가치커다란부채를가지고 …… 엇던이는 …… 부채를가지고다니는것은 단정하는소리를아니드게 참그부채아름답고 진산다」하는것을 듯도록조흔부채를 갓도록주의할것이다 (사진은금년에모양조흔부채)

작일에 행복된피로연을맛친리창환(李昶煥)씨와 그부인조보희(趙寶熙)녀사

가뎡고문

마음가운데괴롬을가지신이 해결치못할사정을가지신부인네들을위하여이란을해방합니다 「동아일보가뎡란」으로될수잇는대로간단하게투서해주십시오 일홈은익명으로하셔도조슴니다

얼굴빗을밝게

(문) 나는이십오세된녀자이온데 본래는 얼굴빗이과히흐지아니하엿는데 요지막와서는얼굴에무슨빗이납니다 엇더한화장품을써야빗을 회복하겟슴니까 그동안바가분만 발녓슴니다(금내리영뎡)

(답) 화장품을쓰는것은얼골빗을 임부게하려고하는것인데 남이석기낫분분을쓰는것이 오히려얼굴을흉하게만드는것입니다 화장을아니하면 아니될법이지이와허리거던 조흔분을써야합니다 서양사람들은 얼굴바탕을갈앗김으로 낫분화장품을아니씀니다 얼골에크림을발느고서 진수건으로 살문지른다음에서양제가루분을 발느는것이가장조타고합니다(긔자)

양복잘못해입남편의구박

(문) 저는삼십세된구식녀자이온데 남편은양복생활을하는신식남자로 갓드니 피차이칭담지못한중에 양복세탁할줄모르다고구박이자심합니다 어떠케하면양복을잘새탁할가요 (하동한구식에서)

(답) 양복세탁을잘하랴면전분녀으로배와야합니다 구박하는당신남편다려 빨나구해보시요 얼마나잘빠나 아마그도잘못빨것이올시다 양복세탁이란배우지아니하고 할수업는것을아지못하는것을보니 무식하기가짝이업는구식신사이가보외다 (긔자)

이섭섭이와 뺑덕이

부인시사일속

녀자미술학원 구일부로인가

시내죽첨뎡(竹添町) 일뎡목사십번디에잇는 경성녀자미술학원(京城女子美術學院)에서는 그간당국에 학교인가신청(學校認可申請)을데출하엿든바 삭구일부(九日附)로 인가가나왓다는데 동원에서는이로부터더 충실히확장하기에 로력한다고 함니다

선천녀청강연

선천녀사 긔독교청년회(宣川女子基督教青年會)에서는지난팔일오후여덟시에 당디명신학교학감으로계신 장예경(張禮敬)선생을청하여 강연회를 열엇든바 생존욕은 인생의본능(生存慾은人生本能)이란 네로 사오백명청중에게 만흔각오와 실익을 주엇답니다(선천)

강경녀자 신성회창립

긔보!!륙월이십칠일에 열으랴든 강경녀자사신성회(江景女子新星會)창립총회는제반준비관계로 지난이일오후팔시부터강경덕유뎐(德松亭)에서 개최하고 리도별레(李道別禮)양의사회로 회무를진행한후동오후십이시경에폐회하엿다고 합니다 (강경)

태화녀자관의 재봉물뎐람회
현장에서팔기도해

시내인사동(仁寺洞) 태화녀자관(泰和女子館)에서는 오는십이일오후두시부터 여섯시까지 그회관안에서 재봉물뎐람회를 여는대뎐람하는 물품은어린아이의양복 어른의 와이사쓰앞치마속옷 남녀자리요등이오그자리에서헐한갑스로 팔기도한다하며동녀자관 재봉부는본래부터이름이 잇슴으로그날은상당한성적을 어드리라고예상된답니다

어린이소식

연강유년 축구대회

시외 동막에잇는 동용데육부(東勇體育部)에서는 년례에의지하야 데이회 유년축구대회(第二回幼年蹴球大會)를오는십팔일에 룡강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개최한다는데 매팀에 참가금 이원식이라고합니다 (고양)

교육강연회
왕십리녀교의

고양군한지면왕십리(高陽郡漢芝面往十里) 사립녀학교에서는 학부형들과 친목을도모하고 문학을 장려키위하야오는 구일오후여덟시 삼십분에동교실에서강연회를 열려고 연사로시내홍병선(洪秉璇)씨를청하엿답니다 (동부)

소년군림총

칠월칠일오후구시에 중림동소년군본영(中林洞少年軍本營)에서림시총회를열고 다음과가치임원이개선되엿다고 함니다

隊長張憲相 幹事南秦星 班長徐銀童 書記金漢福

의주소년분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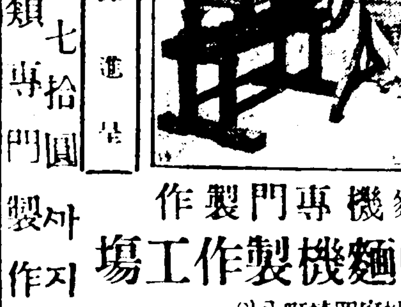
지난일일오후여덟시반 부터의주「푸로」동지회관상청에서는 유디몃사람의발긔로 조직된소년분진단(奮進團)의창립총회를열고좌긔의임원을선뎡엇니다(의주)

團長李承謨 庶務部長洪承禛 文藝部長金明孫 運動部長金光勳 幹事張泰奎 車奉突 顧問金麟燮 康廣祥 規則任員李承謨外數人

리부인단지

경남함안군함안면 봉성동(慶南咸安郡咸安面鳳城洞)강대련(姜大連)(三一)씨부인리씨(三一)는본월칠일오후 오시경에자긔남편이병난지약 六十시간만에 드되여이세상을떠낫는대 너무나애석하고 원통하여자긔무명지를단어죽은 남편의입에피를떠려너엇더니 한번눈을떠보더니아주세상을 떠낫다는대 동리사람들은 그의열행(烈行)을 ……

製麵機特價大販賣
責任保證付
最新式
機械堅牢技術優秀 特質金壹百拾圓부터
金四百七拾圓까지 數種類專門製作
地方特約店募集
型錄進呈



製麵機專門製作
合資會社 田中麵機製作工場
京城府岡崎町八의一 電話龍山五四三番

夏秋 蠶種
蠶具、繭、生糸도販賣하옵
三元交雜種一枚壹圓六拾錢 先金付送하시요(代送料弊社負擔) 代金引換은時期의關係上謝絶함니다 在庫豊富隨時出庫發送하겟사옵
龍山驛前 株式會社 東亞蠶絲 京城支店 振替口座京城五二九九番

資本金參千萬圓
年賦又는定期償還方法에依하는勸業資金貸出의外普通銀行業務竝貯蓄預金業務를取扱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電話長四〇五番 本店營業部 振替貯金口座四〇九番 道金庫振替貯金口座特一三番
頭取 有賀光豊
支店及派出所 (京畿道)仁川、水原、開城 (忠淸北道)淸州、忠州 (忠淸南道)公州、鳥致院、大田、論山、江景 (全羅北道)全州、群山、井邑、益山、金堤、南原、裡里 (全羅南道)光州、木浦、麗水 (慶尙北道)大邱、浦項、金泉、尙州、安東 (慶尙南道)釜山、馬山、晋州、統營 (黃海道)海州、沙里院 (平安南道)平壤、鎭南浦 (平安北道)新義州 (江原道)春川、鐵原 (咸鏡南道)元山、咸興、北靑 (咸鏡北道)淸津、城津、羅南、會寧
外內地、朝鮮、滿洲、支那各地에取引先이有함
三年滿期 殖産積金 積金에加入하시요

多福多壽

全世界에有名한부루도ー제는男女老幼의何者를不問하고身體에가장適當한强壯藥이며本劑를服用하면病者又는虛弱者는心身이共히强健하여질뿐더러血을增케하고肉을肥케하며精力을旺盛케한다故로부루도ー제의常服者는子孫繁榮多福多壽치안는사람이업다

眞正한補血强壯增進劑
부루도ー제

누구나長壽와健康한身體를바람은一般이오나相互間生活上여러가지境遇에依하야不知未覺에自己의貴한身體를毁하는일이幾何나생기나이다이것을豫防하고이것을補함에는「부루도ー제」飮用함이最必要라합니다

本劑는生命을維持함에根元이며最貴한活動의源泉이옵고又人體의榮養을掌하는데血液製造에唯一의材料가되고가장合理的으로써最近科學의粹萃로된優秀한補血强壯增進劑올시다

病者虛弱者의强健化와健康者의精力增進은「부루도ー제」로써어들수잇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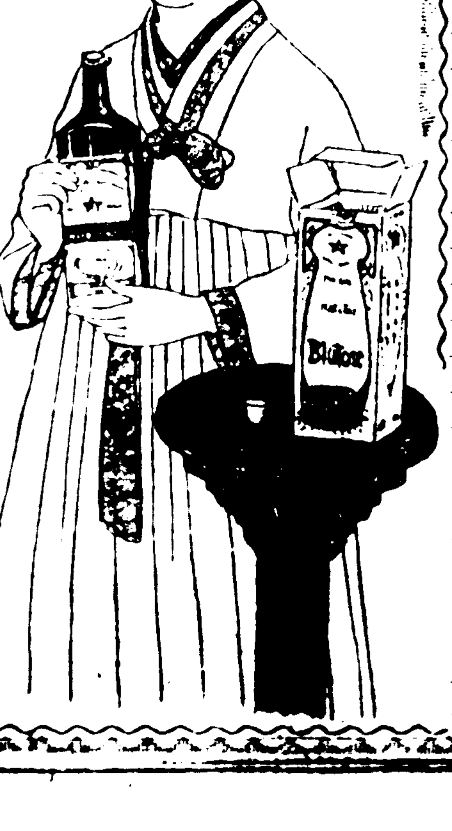
詳細한說明書를請求하시면進呈하겟나이다

特長及種類

一、芳香美味로各人嗜好에適當하고婦人과兒孩도好愛하고口味가快함
二、絶對로胃腸을害함이업고食慾을增進함
三、消化吸收를速하게하고血을增하며肉을肥하며營養을盛케하며體力을强壯케함

補血强壯 營養增進劑 單味부루도ー제
神經性疾患特效劑 아루젠부루도ー제
腺病質特效 補血强壯劑 요ー도부루도ー제
健胃補血 强壯劑 기나부루도ー제
呼吸器系 疾患特效劑 구아야고ー루부루도ー제
(各 小瓶 半月分 / 大瓶 一月分)

●賣捌全國各地藥店에서販賣함 萬一品切의時는直接發賣元으로注文하시옵



發賣元 本舖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振替大阪一七四一番)
京城支店 京城府西小門町 振替京城五五八九番
東京支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振替東京一五八九番

地方論壇

教育者에 一言

沙里院 一記者

무엇보다도 筆者는 第二世의 新舞台에 낫타날 國民을 養成키 爲하야 自己의 모든 것을 全的으로 犧牲하야 가며 兒童敎育에 從事하는 先生諸氏에게는 무엇이라고 謝意를 表치 아니할 수 업서나 그러나 ... 一般社會의 輿論은 不然히 無視할 수 업는 事情도 잇슴 ... [illegible]

◇ 보라 옛날 학자의 師弟間에는 ... 敎授하는 先生들의 ... [illegible]

「廿日까지 不雨면」 大部分 枯死? 慶北道內의 水稻狀況

慶北道內의 移秧狀況은 別項報도와 갓거니와 이에 對하야 農務課員의 말을 들으면 今年의 雨量은 例年에 比하야 約 ... 이 不足한 바 來二十日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직 移秧치 못한 約五千町步는 勿論이고 ... 大部分 枯死할 念慮가 잇다는 바 ... 地方에 따라서는 一週日以內에 ... [illegible]

葉煙草 全部移植 早魃에도 一 [illegible]

例年 갓흐면 六月中旬까지에 全部의 移植을 終了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 ... 今年은 旱魃로 因하야 移植은 不能으로 ... [illegible]

高靈靑年會 緊急委員會

慶北高靈靑年會에서는 지난 八日午後八時에 同會館內에서 第十一回 緊急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 一般의 議事를 ... [illegible]

◇決議事項

一、本會館 一部 競賣에 關한 件

一、高靈警察署 署德谷駐在所 巡査 裴義勳에 關한 件

一、以上의 件으로 臨時總會 召集에 關한 件

孟山火田民困境 貸付主가 小作料를 바듬으로

一、平南孟山郡 ... 面과 德川郡 ... 面 ... 火田民들은 ... [illegible]

二、山監과 有力者 安協會에서 下刈人夫賃金을 七十錢이라고 宣言하고 支拂時에는 六十錢 以上을 주지 안는 일

三、火田耕作者를 人夫로 使用하고 賃金을 明年 火田稅金으로 先히 除하는 일

書面委員會 大會에 關한 決議 關西記者團

關西記者團에서는 第三回 書面委員會를 開催한 바 去三日 各委員에게 發送하였든 常務委員會 提案에 對한 答案은 去九日에 開票하엿는데 左와 如히 決議되엿다더라 (關西記者團)

◇決議

一、來二十七八 兩日間 平北宣川에서 開催될 本團大會時 新聞講演을 開催키로 하되 演士는 各本社로부터 一人式 請邀하고 講演의 範圍는 如左히 할 것

가、新聞雜誌의 由來及現狀

나、記事採擇과 記者의 立場

다、記者團의 必要와 使命

라、朝鮮新聞雜誌及記者評

二、本團 第二回 大會日時는 七月二十七日下午八時부터 同二十八日下午六時까지로 할 것

三、第三回 委員會를 本月二十六日下午八時半에 宣川時代日報支局內에서 開할 것

四、今番 大會는 各其通知치 안코 新聞紙로 公表하야 參加者의 注意를 喚起할 것

創立紀念準備 群山勞働靑年會

群山勞働靑年會에서는 來二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群山公會堂에서 創立一週年紀念講演會를 開催하리라는데 演士는 左記各團體에서 一人式 招聘하리라더라(群山)

全北勞働聯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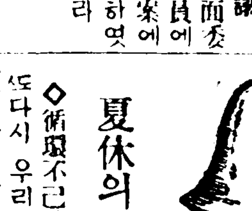
全北靑年聯盟

西貢知友會

群山勞働聯盟

群山記者團

夏休의 利用



◇投稿規定

◇ 循環不已하는 自然의 法則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夏休에 當面케 하도다 朝鮮의 學生들이여! 우리는 엇지하여야 쓰러지지 안이하는 그 貴重한 時日을 朝鮮을 爲하야 좀더 益할 이 잇게 좀더 價値잇게 보낼것인가?

◇나는 이에 夏休를 맛는 所感의 一端을 記하는 同時에 나아가 여러 동모의 만흔 意見을 期待하는 바이라

◇너름은 더웁다! 우리의 갈곳은 어데일가? 海水浴場을 차저 避暑를 갈 것이냐 清風佳景을 차저 遊覽客의 行樂을 할 것이냐? 안이다 學生 동모여! 享樂的 避暑遊覽은 우리의 夢想할도 不可한 者이다 이에 나는 朝鮮의 學生된 우리로서 夏休를 利用할 가장 普遍的으로 可能한 길은 地方의 實情探訪旅行이라고 한다 ...

◇果是 말로만 抽象的으로 政治의 破滅 經濟의 破産 農村의 疲弊를 말한들 무삼 熱情과 誠意가 잇슬것인가 ? 破滅하고 疲弊한 現場에 가서 十六萬戶의 窮農 二十萬餘의 火田同胞의 ... [illegible] 破滅의 慘狀을 直觀하고 ...

◇이에 나는 여러 동모들로 더부러 이 夏休를 利用하야 爲先 各自의 鄕里를 中心으로 하야 가장 慘酷히 破滅의 悲哀와 苦痛에 우는 地方과 同胞를 차저 그들의 實生活을 들고도 더부러 體驗하며 그들의 呼訴와 그들의 哀情의 要求를 直接 聽取 하여 ... 우리의 生活에 切實한 資料가 될 줄 밋는다 ... 同時에 여러 學生동무에게 勸하는 바이다(水原高農KSN)

東拓駐在員非行 元山支店에 解職을 歎願

咸南利原郡東面淸谷里 東拓駐在員 高隆泰는 赴任以來 二個年間에 不實한 行動이 만허서 村民들은 견 될 수 업서 他地方으로 移住코자 하는 사람이 적지 안타는데 너무나 그 行爲가 極度에 達하엿슴으로 東拓 山林保護組合員은 勿論 該地靑年會에서는 憤慨하야 東拓元山支店에 別記 高隆泰를 解職식혀 달나는 歎願書를 提出하는 同時에 警察署에 告訴를 提起하야 밧지 못한 勞働 賃金을 밧고자 하는 等 事件은 漸漸 擴大되는 貌樣인데 一般民間의 不平은 大槪 아래와 갓다더라

◇不平條件

一、東拓山林左岸里第 ... 號線內 七十四號 標木을 自己의 任意대로 移植하야 個人所有로 賣食한 일

二、山監과 有力者 ... [illegible]

八、火災當한 火木을 保護組合員이 가저갓는데 이것을 押收하고 또罰金까지 徵收한 일

事實이면 解職 利原支店長談

이에 對하야 또直接監督者인 利原邑東拓駐在所長을 訪問한 즉 惶恐한 語調로 말하되 ... 會社事業進行上 滋味가 업슴으로 事件은 今日內로 即時調査하야 事實이면 解職은 勿論 會社의 損害와 人夫賃金은 밧게 하겟습니다 云云(利原)

聯合教員講習 七日間 金泉에서

金泉公立普通學校에서는 來七月二十一日부터 同二十七日까지 七日間 聯合教員講習會를 開催한다는데 講習要項은 左와 如하다더라

一、講習員

가、第五部 敎員 金泉、尙州、醴泉、聞慶 各郡 公立學校 敎員

나、其他 希望者

一、講習科目

日語、算術、國史、體操、音樂

一、申請方法

가、第五部 會員은 七月十八日 外地 各郡 敎育會長으로부터 出席者 氏名을 取纏 屆出할 일

나、其他 希望者는 七月二十日까지 申請할 일

다、申請場所 金泉郡敎育會長 佐藤信太郎에게

一、會費

가、第五部 會員은 不要

나、其他 一圓 (申請時 添付)

各地移秧狀況

七日現在 八割三分 慶北各郡狀況

慶北農務課調査에 依한 道內移秧 狀況을 드르면 지난 七日까지 畓의 總面積 十八萬六千町步에 十五萬 三千五百町步 곳 八割三分의 移秧을 맛치엇다는데 昨年同期의 狀況에 比하면 一割一分三厘이나 된 割合이라는 바 이제 郡別로는 榮州 奉化 鬱陵島의 세 곳에서 全部를 맛치엇고 尙州 慶州 聞慶 永川 迎日 英陽 盈德等 地方은 九割以上이오 金泉 高靈 醴泉 靑松의 四郡은 八割以上이며 淸道 星州 漆谷 軍威 善山 義城 安東等地에는 七割以上인 바 以上의 諸郡外 ... [illegible]

巡廻探訪 (十) ―安城地方大觀(2)― 安城一記者

... 無論하고 ... [illegible]

鶴橋青年發起 지난 八日에

... [illegible]

大田勞夜設立

大田米五、地方의 事情도 모르는 自己의 舍弟(元山居住)를 請하여 巡視 (略)

六、賃金領受證에 金額은 記入치 안코 捺印부터 먼저 한 일

七、今年 四五月間 特別巡視料 (閔如玉 申等)로 四十四圓

... 大田勞働者와 엠의 靑年會 任員諸氏가 勞働者의 子女를 爲하야 本町에 夜學을 設立하고 ... 名의 生徒 ... 志願者가 ... 나 ... 더라(大田)

教育界

安城은 他郡에 比하야 ... [illegible]

◇私立安法學校 邑內大 ... [illegible]

◇新明講習所 ... [illegible]

◇安靑學院 ... [illegible]

◇其他 ... [illegible]

社會團體

◇安城靑年會 安城郡內 社會團體를 紹介 하자면 ... [illegible]

◇安城老人會 ... [illegible]

◇安城少年會 大正十三年 ... [illegible]

◇竹山靑年會 安城郡竹山市場에 잇서서 靑年의 敎養과 地方發展에 必要한 事業을 進行하는 바 中心人物은 崔昌赫氏이며 現在會員은 百餘名이다

◇竹山農友聯盟 安城郡竹山에 在하니 今年二月에 尹鐵榮 朴昌浩 崔昌赫外 諸氏의 發起로 創立하고 今日의 疲弊한 農村階級의 敎養과 農民의 團結을 目標로 하야 ... 現在 會員은 百餘名이다 ... 農民團結 ...

會長 朴承六氏는 六十八歲의 高齡者로 일즉이 安城社會의 各方事業에 關係하지 안은 바이 업스며 民衆의 福利를 爲한 事業이면 지금도 勞苦를 不辭하고 精神的 物質的으로 크게 盡力하야 安城에 가장 信望 잇는 人格者이다

◇衛平社 衛平社 安城分社는 大正十三年에 組織하고 衛平運動을 進行中이며 現在 社員 五十餘名 分社長 片門玉氏이다

◇安城基督敎會 ... 宗敎靑年會가 잇서서 用力함이 적지 안타

名勝古蹟

◇七長寺 二竹面 七長里에 잇스니 新羅古利로 高麗顯宗朝에 惠炤國師가 重創하엿스며 伊來千餘年間 累次 火災를 겪거서 燒失되엿스나 지금도 大雄殿外 五 佛殿이 잇고 連山이 四方에 둘너잇서서 멀니 俗塵을 避하고 仙境을 이루엇스며 古來로 同寺에 史庫가 잇섯스니 輿地勝覽에 七長寺在七賢山 辛禑九年 以倭冠移入內地 移 忠州開天寺 所藏史于此등이라 하얏다

◇靑龍寺 瑞雲面 瑞雲山에 잇스니 高麗元宗時 創建한 古刹로 附近 風景이 아름답고 맑은 시내가 흐르며 樹林이 鬱蒼하고 槳泉이 잇서서 避暑地로 이름이 놉다

그 外에는 李朝英祖時 逆臣 李麟佐亂을 平定한 紀功碑(邑內)와 高麗恭愍王時에 元의 紅賊을 討平한 紀念으로 建築하엿든 克敵樓 (邑內에 잇섯스나 지금 廢址임) 高麗高宗時에 蒙古兵을 討平한 宋文胄 將軍의 戰地인 竹州城址(竹山邑) 李朝宣祖壬辰亂에 義兵將 洪季男 李德男의 戰地인 瑞雲山城(瑞雲面 所在) 等이 잇다

이 아름이 놉흔 安城渡가 잇스니 이는 日淸戰爭에 日軍 松崎大尉의 戰死地이다(完)

◇寫眞說明◇ 上은 安城 名望家 朴承六氏 中은 安城靑年會 執行委員長 金台榮氏 下는 安法學校長 孔安國氏

染病豫防注射

平壤府에서는 漸次 腸窒扶斯 發生期가 갓가워옴으로 市內 飮食店 麵屋 料理店 下宿 獸肉商 理髮業者 藝妓 娼妓等에게 昨十日부터 來廿日까지 各其 組合所 其他에 모아 가지고 豫防注射를 行한다더라(平壤)

關西地方

▲基督勉勵靑年會創立 宣川郡 深川面 淸江市에 잇는 耶蘇敎會에서는 金亨三外 諸氏의 發起로 宗敎道德을 向上케 하며 智識을 發展케 할 目的으로 去四日午前十一時에 當敎會堂內에서 勉勵靑年會創立總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 金亨三氏 司會下에 文炳燁氏의 趣旨說明과 規則通過 及 諸般決議事項을 滿場一致로 決定한 後 同午後 四時半에 閉會하엿다더라(東林)

▲農村青年黨夏期講演會 安州郡 燕湖面에서 새로히 組織된 農村 靑年黨에서는 敎養部 事業으로 安州思想硏究會 鄭應臣 氏를 演士로 請하야 오는 十、十一 兩日間에 夏期講演會를 開催한다더라(安州)

嶺南地方

●進靑執行委員會 慶南進永靑年會에서는 지난 八日午後十時頃에 第三回 定期 執行委員會를 同會館內에서 臨時議長 金潤坤氏의 司會로 開하고 左記 實行事項을 決議하고 同十二時에 閉會하엿다더라(進永)

◇決議事項

一、許時模 績行事件에 干한 件

一、許時模外 各關係當局에 警告文을 發送할 일

一、相愛會暴行事件에 干한 件

一、日本에 잇는 相愛會本部에 警告文을 發送할 일

一、朝鮮社會運動團體中央協議會 出席代表人選定의 件

一、故金思國 林玟鎬兩氏追悼에 干한 件

追悼式을 오는 十四日下午八時 擧行할 일

●倭館靑年定總 지난 四日午後一時에 倭館靑年會定期總會를 同會館에서 開催하고 許弘濟氏의 開會辭가 有한 後 議長 蔡忠植氏의 司會下에 左와 如한 決議와 任員改選이 有하엿다더라

◇決議

一、郡聯盟을 發起할 것

一、中央協議會에 加盟할 것

◇執行委員 鄭根厚外 六人

●牧島靑年臨時總會 釜山牧島靑年會에서는 去四日午前九時에 同會館內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야 役員을 選擧하고 牧島無産子弟의 教育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生覺하야 南北兩處에 夜學을 設立하고 有志靑年이 犧牲的으로 敎授에 從事하기로 하고 左와 如히 決議하고 同日下午一時에 閉會하엿다더라(牧島)

◇決議事項

一、本會維持에 關한 件

一、夜學에 關한 件

一、其他事項

◇役員選定

▲幹事長 許允玉 ▲常務幹事 李榮彦 ▲社會部 河成龍 ▲庶務部 李榮彦 ▲文藝部 劉淡李 許允玉 ▲體育部 朴鎔達 ▲評議員 曹正煥 外 四人

●牧島義塾夜學部 學生學藝會 釜山牧島義塾 夜學部 學藝會는 去六月二十七日下午八時 同義塾에서 敎師 許炳周氏의 司會로 開催하엿는데 觀衆은 雲大임도 不拘하고 定刻前부터 大滿員을 呈하엿스며 科目에 依하야 男女生徒의 熱熱한 演說과 淸雅한 노래에 拍手喝采聲은 場內外가 震動하엿고 來賓으로 曹 ...

湖南地方

◎新左靑年執行委員會 濟州島 新左靑年聯盟에서는 去一日午後二時에 朝天公會堂內에서 第一回 執行委員會를 열고 金昌喜氏의 司會下에 左記事項을 決議하고 閉會하엿다더라(朝天)

◇決議

一、靑年運動에 關한 件

一、産業運動에 關한 件

◎群山勞靑執行委員會 群山勞働靑年會에서는 去七日午後九時에 第十回 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討議한 後 同十時에 閉會하엿다더라(群山)

◇討議事項

가、定期總會 召集의 件

나、會費徵收의 件

다、朝鮮社會團體中央協議會 加盟의 件

라、本會 創立一週年紀念講演件

◎群山勞靑定總 群山勞働靑年會에서는 來二十日午後八時에 同會館內에서 第二回 定期總會를 開催하리라는데 一般會員은 全部 出席하기를 바란다더라(群山)

海西地方

△海州配達臨總 海州新聞配達同盟에서는 지나간 二日午後七時에 本町靑年會館에서 金興氏의 司會下에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아래와 갓흔 決議를 하고 閉會하엿다더라(海州)

◇決議

一、朝鮮新聞配達總同盟에 關한 件

一、會館에 關한 件

一、金德泳氏 解任事件에 關한 件

△養蒙校卒業生定總 黃海道黃州郡 黑橋面 私立養蒙學校는 三十餘星霜의 長久한 歷史를 가지고 數百을 算하는 英才를 産出한 當地 唯一의 育英機關인 바 該校卒業生 一同은 母校의 發展과 同窓의 親睦을 期하야 卒業生會를 組織하고 各方面으로 만흔 活動을 하는 바 오는 八月十五日에 第二回 定期總會를 該校大講堂에서 開催하기 爲하야 벌서 當會幹事 一同은 準備에 奔忙中이라는 바 各地에 散在한 卒業生들은 一齊히 參席하기를 바란다더라

△鳳山小學庭球中止 黃海道鳳山私立學校主催로 來二十二日에 開催하라든 鳳山小學校庭球리그戰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無期中止되엇다더라(沙里院)

東北地方

◎雄南印工親睦定總 咸北雄南印刷職工親睦會에서는 定期日인 六月第一日曜日은 國葬으로 集會禁止가 되여 延期되엿든 바 去四日午前八時부터 曉星幼稚園內에서 第一回 定期總會를 吳昌洙氏의 會辭로 開催하고 順序에 依하야 議長과 書記를 選擧한 結果 議長 吳昌洙 書記 鄭憲洙 兩氏가 選擧되여 會員點名 會錄朗讀 各部事業報告 委員任期滿了 委員改選等을 맛친 後 該勞働聯盟에 加入件은 여러 가지 關係로 委員會에 一任키로 하고 其他를 討議한 後 祝辭와 祝電 祝文을 朗讀하고 同十二時에 閉會하엿는데 選擧된 委員은 如左하다더라(雄南)

魏長煥 外 七人

畿湖地方

◆無窮會臨總 洪城에 事務所를 置한 無窮會에서는 去五日午後九時부터 本報支局內에서 常務 金興善氏 司會下에 臨時總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더라(洪城)

◇決議

一、新入會員受理件

一、委員辭任願受理件

一、中央協議會加盟件

◆衛平分社臨總 忠南舒川分社及 衛平靑年會에서 經營하는 夜學은 生徒가 日加月增하야 現在 五十餘名에 達한다는데 敎室이 좁아서 困難이 莫甚함으로 經營者側에서 對策을 講究하든 바 去七日에 臨時總會를 開하고 該分社長 趙好年氏의 開會辭와 經過報告가 잇슨 後 臨時議長 選擧에 들어 口頭公選으로 洪思均氏가 被選登壇하야 議事를 進行한 後 同午後三時에 閉會하엿다는데 決議事項은 左와 如하다더라(舒川)

◇決議

一、夜學室 建築의 件

一、夜學室 改修建築에 關한 件

一、本部維持費 一二期分送金의 件

◆엡윗靑年定總 忠南公州美監理敎會에서는 지난 七日午後八時 半부터 當地 大和町 禮拜堂에서 엡윗靑年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會長 金維珏氏 司會下에 滿期의 任員改選에 對하야 如左히 選擧하고 同十一時頃에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公州)

◇任員

▲會長 黃仁植 ▲副會長 洪承漢 ▲宗敎部長 洪承漢 ▲文藝部長 金維珏 ▲社交部長 安信永 ▲財務 高聖興 ▲書記 李在白、劉復烈

◆江景體育會任員會 江景體育會에서는 夏期를 當하야 한가지 運動을 準備코자 去七日午後九時 中町 尹恒炳氏 家에서 同會 任員會를 開催하고 事件을 討議하든 中 今年 夏期에는 南朝鮮庭球大會를 同會의 主催로 開催할 바를 相議한 後 來十一日에는 臨時總會도 열어 此를 通過케 할 것 가지 決議하고 同十一時에 散會하엿다더라(江景)

特志와 慈善

△訓導가 學生授業料 全擔 忠南保寧郡 熊川公普校 訓導 金大權氏는 同校에 轉勤한 後 以來 四個月동안에 어린 學生을 熱誠으로 敎授하며 兼하야 其中 貧窮學生의 月謝金 未納으로 苦痛바듬을 더욱 不忍하 ... [illegible]

△慶南咸陽郡西上面 ... [illegible]

△永明校에 土地寄附 忠南公州 常盤町에 居住하는 梁昇鉉氏는 當地 本町 永明學校가 財團法人 組織으로 高等普通學校를 만들라는 때 지난 四日에 土地二百(約三百餘圓價値)을 同校에 寄附하엿슴으로 當地一般人士는 稱頌이 藉藉하다더라(公州)

地方人事消息

◎廬俊泳氏(本報 成陽支局長)는 身病으로 晋州道立病院에 入院 療養中이든 바 去六日 歸宅(成陽)

◎知事一行 農業視察 朴榮喆氏(江原道知事)는 朝日石綿株式會社 取締役 社長 曹鳳暉氏外 一行은 農業狀況 視察次로 去六日 下北關에 到着하야 大正水利組合과 二川農場等을 視察하고 去八日午後二時 自働車로 胡鮮水利界에 거쳐 揚下面 三橋川水利組合에 到着하야 視察한 後 同三時에 新浦 ... 로 出發하엿다더라(楊市)

◇地方短評◇

●論山 論山에서는 稅金未納者 家産處分에 한참 奔走하다고. 只今 農家에는 돈이 잇고 稅金에 家産差押에 地處分을 當하니 참 氣막힌 朝鮮사람의 身勢!

●大邱 日本人側 文房具商 組合에서 「너나 한 집 子弟」를 爲하야 犧牲한다는 集子弟들 爲하야 犧牲한다 … 弊害가 잇다는 理由로 府內 各校 學用品 共同購入을 廢止해 달나는 要求를 하다나. 돈을 만히 벌게 해달나는 要求를 바로 할 일이지

●大邱 지난 三日 笠子 工 六十餘名이 盟罷한 것은 大邱 署에서는 八日에야 비로소 알엇다고 機敏한 警察이로군!

第二回 全朝鮮庭球大會

◇時日 七月二十九日、三十日

◇場所 宜川明信學校 코-트

◇申請期日 七月二十七日까지

◇申請場所 宜川基督敎靑年會館

◇參加金 靑年組 三圓 少年組 二圓

◇抽籤 七月廿八日下午八時(於同會館)

◇規則 新規則에 依함

◇賞品 優勝旗外 賞金(靑)廿圓 (少)十圓

◇主催 宜川 Y M C A

◇後援 時代、朝鮮、東亞三宜川支局

第一回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七月十八日(雨天 延 次日曜日)

◇場所 慶州鄕校庭

◇申請期日 七月十五日限

◇申請所 慶州東亞日報支局

◇會費 一組 金壹圓 (申請時 添付)

◇賞品 優勝旗、銀盃、其他

◇規則 舊規則

◇主催 東亞日報慶州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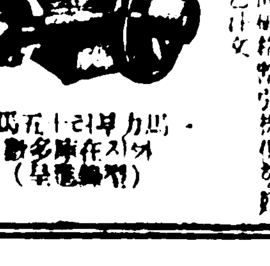
◇後援 朝鮮民報慶州支局

七月九日(金曜)부터 正喜劇 大活劇 特別大公開 … 義血의 感淚 全八卷 … 美王子 全九卷 … 大豫告 亞細亞의 光 全十卷 千古不滅의 名作品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

男女防疫豫防具 삿구 本邦唯一의 精良品 … 丁子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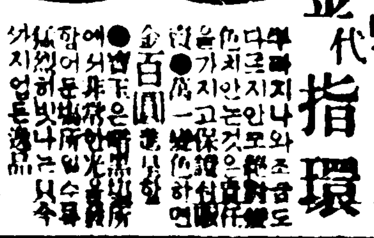
京城鐵工所營業部 京城府西門外 電本局九四一番

地方特約店募集 京城府西界洞三三 京城鐵工所 電話 龍山二三三番



馬力五十圓、十五馬力以上 ニノミヤ式 … 石油發動機 …

總代理店 各道郡御指定店 … 大流行의 것 … 特約店及販賣員募集 東京市 … 東洋行



白金代指環 다이야몬드의 百倍以上 … 男子用 金一圓五十錢 婦人用 金一圓五十錢 …

보는대로 듯는대로 새각나는대로

□□□ 忙中閑人

돈!돈!돈!

세상이 돈세상이라「돈타령」이 류행한다。이타령을 누가지엇스며 어느때부터 부르기시작하얏는지는 알수업거니와 현재부르는사람들이「돈이원수」한사람들이고 현재류행되는사회가 돈만아는사회라、문구가 속되고 뜻이 비근한념도업지아니하나 비근한노래중에 주대한사회의현상이들어나고 속된타령이 문득현실의실정을폭로함이라、듯고보아 해로옴이 업슬진뎌 위선한두귀 적어보자!

◇

돈!돈! 돈이야!돈이로구나! 잘난사람못난놈、못난사람잘난놈、청년의앞길을망치는돈、[illegible]가죽발리는돈、꿀방속에서웃는돈、은행을입울실하는돈、미두장에널린돈、묘리덤에깁힌돈、산목잡고우는돈、킷쓰하고친했는돈‥‥

◇

돈타령이 이것뿐일 리치도업고 이러케 타령을지을라면 한량도업슬것이다。제조상도모르는돈、공후백작만아는돈、지사의뜻을굽히는돈、필부의지랄을도와주는돈、도의도 강상도 모르는돈、이청과 의리를잘아는돈、변부자(卞富者)의조흔돈、리완용(李完用)의추한돈、광주부호(光州富豪)의세력잇는돈—광주부녀(光州婦女)의 잔인한돈!‥‥‥ 이러케 하고만흔 돈타령가운데서 망중한자가쓰고십고 말하고십흔타령은、광주부호의 세력잇는돈과 광주부녀의잔인한돈이다

◇

본사특파긔자의조사로 자임본지에발표된 광주부녀의폭행사건은 이제다시쓸필요도업시일반이다알것이다。기괴한이사건의자세한내용은 오늘도보도되고래일와지도보도될것이다。가당(家長)과시부(媤父)의 되지못한금력을밋고、호사와방자의괘심한버릇을 괴탄업시발휘하야 연약한생명을 주밟고엄연한인권을유린하야 인도상으로용서할수업는 잔인한죄를범한다섯명의녀자는 도로혀첩업고지각업다하야 임분진작도할수잇스려니와 돈타령에넉을일코돈냄새에 코가막히여귀중한사명과당연한직책도 모른체한의사와변호사가잇것슴은 무엇으로써비평할가?

◇

세상은과연돈세상이다。돈!돈!돈세상이다。돈세상인줄을우리도잘알고 천하사람이다잘안다。잘아는사람중에도더욱잘아는사람은창기와기생이다、부랑자와노름꾼이다。그리고그변호사와가튼종류의변호사와그 의사와가튼종류의의사이다。

衡平社員과問題되여 裡里市民騷動

일시는형세가매우위험해

지난달이십칠일 리리상념에 잡허유식점 김도선의처조성녀(趙姓女)방에서익산군 춘포면석탄리(益山郡春浦面石灘里)정인태(鄭以泰)가친구로부터부러슬음먹을때 그때맛참 형평사원인함긔선(咸基先)외커 박성녀(朴姓女)(三)가주인에게 고기갑을달나하매 주인조성녀는 소입을에게술갑을 바더주마고 하얏든즈음에 꼬기갑을바드려고 괴다바리고정인대는 술을반치고 회계할제술갑천부칠십전주맛칭가는다음에주마고하고이리서려할럿돈십오전만 위선주며 남어지리돈된괴 박성녀는 정인태에게할하야「당신이돈을 안냄으로버꼬기갑도 못바드니 잔소리말고술갑을내오」하고밝을 건것이동긔로정대는박성녀에게 주저넘은소리를왜무례히하느냐고긴개하며더욱히 고기파는 계집이자허군다고 하엿든바 박성녀는「누구다려해라하느냐」하며달녀들어정인태의 멱살을 붓잡고느려지는것을 뎡인태는그의 뺨을떠리며 뿌치려하엿스나박성녀는응시도지 안코달려들다가 [illegible] 기세를 [illegible]장 사람의제지 로써자긔 집으로도라간일이잇섯는데이소문을들은형평남녀사원수십명은전긔조성녀와 유치장을보위 하고정인태를찾든중 맛참내 자긔집으로도라가는 정인태를발견하고 도중에서추격하야 논바닥 진흙속에서수십명이 란타한후나시 창러고기전사지 정인태를 끌고가서밤서 정신업시 너머진정인태를을의사고 역시수십명이 둘러싸고무수란타하며 [illegible]차손동 행동을취한다하야 그근처의는시민 들이나서 말니며그부러한 행동을 무정는일방경찰서에갈고 하야나중 경관의출동으로나히 나하가게되엿는데

益山衡平分社 請援電報發送

형평사원의 이행동을 본시민측몟사람이 다만그심한것만 책하고말엇스며 아모일업시 지나쳐오든바뜻박게익산형평분사(益山衡平分社)에서는 싸홈낫든날리리시민들이자긔네를백정(白丁)이라고모욕하엿스며또는간섭하엿다하야 이불며항 하고긔경성형평본부(衡平本部)를위시하야군산(群山)긔타각디에중대사건이돌발 되엿스니 곳응원을오라는 뎐보를발송하야 수백의형평사원이 모아든다는 소문이돌니자경성 형평본부로 부터유공삼(柳公三)이라는위원이입의나리와서 쾌반대책을 강구실행한다하야 경찰의 활동이개시가되고 [illegible] 시민 측에서는불안이[illegible]게되엿

市民側大憤慨

피해자는경찰에고소데긔

이에시민측에서는 극히 격분되[illegible]형평분사가[illegible]행동을 취하야 디방을소란케함은 지금이나 장래를위하야용서치 못할바이라하야 형평분사측에 대항코저 지난일일밤부터그동안 [illegible] 기세를보이는동시에 초이일밤에 역시수백명이모혀 형평사원이 영업하는수육(獸肉)판매데로사먹지안키로 할것과시민측에 따로수육판매상조합(獸肉販賣商組合)을설립할것 두가지를 결의하고즉시로 시행케되야 각음식뎜과 다위반은 식대로 수육을안사게되얏스며 수육상조합은 그대로발긔되야 [illegible] 만반을 구비하야 진행중이엿는대 경찰이간섭하야 아즉시긔가맛당치 안으니뒤人날로 연기하라하며 그들의생명을빼는것이니좀생각할바라고제지하야임시중지하게 되엿는데 사건이이처럼버려지자 피해자 뎡인태는진단서를 첨부하야 경찰에고소를뎨긔하엿슴으로 경찰은 즉시형평사원조개동(趙介同) 함긔선(咸基先)박성녀(朴姓女)등십명을검부구금하고 련일 엄중취조를진행중 일간군산 검사국으로넘기리라는데

青年會가仲裁

시민은청년에일임

사실이 의외로확대되야 디방의중대문대로 화하매 리리에잇는각단테 며표자들은 지난삼일밤자성조합회관(自成組合會館)에모혀서 래도를협의하고 이사건은전부리리칭년회(裡里靑年會)에일임하야쌍방중재(仲裁)에로력하야 디방의불상사를 일소하자고결의하야 그주선에로력중이든바 지난칠일밤에도 수백여군중이 리리장터에모혀 여사건의선후책을 협의하든 한편으로는최후뎍 행동을취하랴는 형세가보인다하야 련일비상한 활동을개시하고잇든경찰은크게놀내여수십명이출동하야군중을헤치며선후책을협의 하겟거든 경찰서구내에와서 하라하며 해산을식힘에 시민측에서는 그도불사한다하야 드듸여 수백군중이경찰서로쇄도하매경찰은다시혼잡을피키위하야 시민대표자겨우 가것다는[illegible]십여명을동서강무장에모혀 정식으로 동일시부터회의를열고

畢竟圓滿解決

형평사원의여러가지사죄로

림시석장김인형(金仁炯)씨사회로써 만반의선후책을 토의하게되엿는데장내는물론장외에경관이모위하고 기타주위며 광장에는군중들이경찰의제지도듯지안코 물밀듯하야 험화하기짝이업섯는데 회의석상에는 형평분사대표조성환(趙聖煥)외두사람을출석케하야 경관의립회로써 쌍방이다협한결과 「신문지상으로형평사원은 리리시민에게 사죄문을발표하고피해자정인태의치료비급 손해전부를 형평분사에서 배상한답의외 여러가지조건을리행한다」는조건으로원만히해결되엿다더라(리리)

兄弟間에訴訟

토디관게로

형데간에재판을해

전남광양군 진월면진뎡리(全南光陽郡津月面眞亭里)안병규(安炳圭)은그의실형 안병관(安炳瓘)을걸어토디소유권 확인급인도청구사건(土地所有權確認及引渡請求事件)으로 광주디방법원순텬디텽(光州地方法院順天支廳)에소송을 데기하야그의실부안윤석(安潤錫)을증인으로하야지난오월 십칠일에 데일회변론을맛쳣다는바 그내용을 듯건대원고는 이제로부터 십오년전에동군동면차사리(東蛇里)에잇는토디약 이천오백평을 그의실부안윤석으로부터수증(受贈)하엿던바 그후총독부 토디조사시(總督府土地調査時)에피고는자기의명의로사뎡(査定)하여버렷슴으로 동생은형을 대하야두차그부당함을 말하엿스나 그는종시듯지안음으로결국소송을하기까지에이른것이라하며쌍방의증인이십이인이나되엿더라(순텬)

織造部女工盟罷

평양물산직조부녀공들이

평양부내창뎐리조선물산상회직조부(平壤府倉田里朝鮮物産商會織造部)녀직공이십이명은 재작구일오전아홉시경에다유파가튼여섯가지요구조건을염직부주인에게뎨출하고 만일그요구 조건중한가지라도 안들어주는 조건이잇는경우에는최후의수단을단행하겟나고한후 주인측으로부터 회답이오기를기다리고잇든중동열두시경에주인최동훈(崔東勳)씨가직조부에가서 여섯가지 조건중 첫재 조건과 다섯재조건은당초부터 그런일이 업섯슴으로들어주고 안들어줄일이 업다고대답하엿스며 남어지 조건은 들어줄수업다는것을성명한까닭으로직공의 반수이상은 작업을중지하고집에도라갓스며남어지직공들도모다작업을 헐씬하지안코래업상태로지내는중이더라(평양)

一、無條件으로職工을解雇치말일

二、職工을解雇할때에는職工에게必히問議할일

三、織造部主와職工間의個人感情으로職工을解雇치말일

四、工場內의일을主와技師外에는一切干涉하지못하게할일

五、女工의失手에對하야 人格을無視치말고 賃金을[illegible]할일

六、解雇當한洪德奎를復業식힐일

理由는女工解雇

전긔직조녀공 파업내용을 듯건대 녀공중홍덕규(洪德奎)(三八)를 지난삼일에 주인의안해되는사람이 작업소에들어가서 갑작히해고를 명하고 돌려보낸까닭이라는데 주인측의말은 전부터그녀공만은 몹시놀기를 조와하는까닭으로 주의를 식혓섯스나 종시곳치지안음으로 해고한것이라하며 가튼직공측의 말을듯건대 게을으지도안엇스며 제가할일을다하고는 노는일도 잇섯지마는 공연히일아니하고 노는일은업섯는데 갑작히 해고를하엿슴으로 자긔네들은 엇지된영문도 몰으고잇섯더니 추후에도또다시 내여쫏칠사람이 잇스리라는말이 잇는까닭에 그러한요구조건을 뎨출한것이라더라(평양)

百餘饑饉農家에게 農會費金만督促

—긔근에싸진백여호농민들에게 구제는아니하고농회비만독촉—

함남단천군광천면 와동리(咸南端川郡廣泉面瓦洞里)와 동군남두일면신평리 개화동(南斗日面新坪里開花洞)에서는 햇보리를먹어야살아가는 잇때에 불행히불갓치쏘이는 한재로인하야 보리를전부 말녀버리고 지난달중순부터 근백호가량이 나되는 농가에서는 양식이 떠러저서 사오일동안 꼭긔를하지못하고 나무뿌리를뫼먹는등 겨우연명 하여가는집이만하 이리저리로 류리의길을떠나는 등의비참한 현상이날로더하여 간다는데 이에대하여행정당국자는아모대책도강구치아니하고 도리혀 그들에게농회비(農會費)를내지안는다고독촉이자심 함으로 일반은당국자의무책임한것과 무리한 독촉을크게비란한다더라(단천)

瀆職暴露를念慮 現職巡査逃走

처가에가서풍파를여르킨후

황해도재령군신원경찰관주재소순사 김병근(載寧郡新院警察官駐在所巡査金炳根)(三○)은 여러가지독직사건(瀆職事件)과두추한행동이 세상에폭로되여 도저히미봉할길이 업는것을알고 지나간사일 남몰으는밤중에 그만도주하고 말엇다는데 김병근은신원주재소 재근이래 삼년간을두고 협잡배를 조종(操縱)하야투전판을 처먹는다 부정수단으로 무지한사람들을 골녀먹는다자긔의권리를 빙자하야 무수한사람들의돈을 염치업시 쌔어쓰고 물건갑과료리갑변련돈을 지긔만하면 갑지는아니하야 일반의여론이 비등할뿐아니라 최근에는 순결한남의처녀를 교묘한수단으로 간통하며 아모혐도업는아히도 여럿을나흔 자긔의안해를소박하야 보가로 쫏차버리는등 행동이만허 비난이자자하는중 엇던사람이 이사실을들어재령경찰서에 투서를하엿슴으로 일전에재령경찰서안부장(安部長)이하 현사가 출장하야 사실을조사하는중 김병근은 자긔의처디가 위태함을깨닷고 번민함을 마지아니하다가 자긔에게소박당한안해가 원한을품고 투서를한가 의심하야 처가에가서본처를위시하야 왼가족을 방망이로 무수히따리여 중경상을내이고 세간을모조리 짓부시여서일장풍파를 내인후 련일자긔의처디를보존코자 태도가십히 괴이하더니 필경은엇지 할길이업던지그와갓치 도주를하고 말엇다더라(신원)

平南地方旱騷

일홈계속하면큰일

경성이남은 지난삼일 비로말미암어오래동안 계속되는 한밥은아모영향이 미치지안케 되엿다하나경성이서의 감을은 의연히계속되어 평남디방은 인심이매우불안한중 이라는바 평남도령농무과의 말을듯건대 논의총면적은삼만여뎡보로지난일일현재의이앙은 이만팔천여뎡보는 이앙이되엿섯스며 지난삼일에 온비로말미암어 남어지 일만일천사백여뎡보중에서약이할가랑이이앙되엿스니까 아직까지 이앙을못한것이 약구천 여뎡보인데지금어라도 비만흉측이오면 좀더건지겟는데만일이로부터한열이 이상태로갑은다면 모다타죽어바리고 한해도 건질수가업슬것이라하며 열흘이내에 비가온다면 그래도다른것을 곳처심는것보다는 나흘것 이라하며면곡들도 이로부터 열흘이내에비가아니오면 모다말려죽고 말것이오 이앙을한것들도 역시그때까지비가 아니오면 모다말려바리고말것이라더라(평양)

獨子溺死

한강에목욕하다가

재작구일오후두시경에시내원뎡(元町)삼뎡목이백팔십이번디김태수(金兌洙)[illegible]의아들김용회(金容禧)[illegible]는 원뎡사뎡목부근한강(漢江)가에서목욕을하며헤엄을처 물깁흔곳까지 드러가다가 긔진맥진하야 다시헤여나지못하고 손을허우적거리며 그만 물속으로드러간것을 헤엄을배우러나갓든 룡산서원들이 여러사람들의 후원을 어더약반시간후에 건지어내엿스나 그는다시소생치못하고 그만 죽어버렷다는데 그는전긔 김태수의돌도업는 귀여운 외아들로금년봄에시내서대문뎡(西大門町)협성보통학교(協成普通學校)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한 압길이양양한소년이라는바시데를어루만지며 호천통곡하는 그부모들도길이달나진아들의 시데를작십일오후에는 매장하엿다더라

◇모 임◇

巖堂韓晩容氏追悼會 이전에보인학회당(輔仁學會長)으로보인학교당 문예구락부 강사양정의숙(養正義塾)설립자로 그타여러가지 학교사업으로 만흔공적이잇던 고긔당한만용(韓晩容)씨의추도회를 류영렬(劉泳烈)장용직(張溶稷)등유지의발긔로 금십일일 오정에시내보인학교(輔仁學校)안에서거행한다더라

京靑聯執行委員會 시내견지동(堅志洞)팔십번디경성청년련합회(京城靑年聯合會)에서는금십일일 오전열한시부터 동회관안에서 집행위원회를 연다더라

◇日曜講話◇

場所 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
日時 七月十一日(日曜日)午後三時三十分
演題 할수잇나
演士 洪秉德氏
主催 中央基督靑年會宗敎部

場所 京城鍾路리문안中央禮拜堂에서
時日 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問題 讚杯는何이뇨
演士 崔炳憲 先生
時間 同午後八時半부터
問題 世上의光
演士 朴熙道 先生
主催 京城美監理中央敎會

◆天氣豫報◆

曇
昨日正午 [illegible]
昨日最高 [illegible]
昨年昨日正午 [illegible]

◇사진은 안주의자랑거리백상루

향도레찬내고을명물 (十三)

洪景來의革命旗…… 乙支文德奇功

—킹천강안백사우에옷독솟슨루각 일홈도조커니와자랑도가지가지—

◇安州名物 百祥樓의자랑

반만년동안이나 찬란한력사를가지우리 삼천리무궁화동산에명승고적과타 명물이어데업스라마는 대개는향토에그냥굿처잇서서그일흠을 세상에뎐하지못하게되것이 만흠을안다이제다행히동아일보의향토레찬내고을명물을 만든엇게되아우리안주(安州)디방에잇는 명물을소개하려하매칠불사(七佛寺)충민사(忠愍祠)수벽(繡壁)등그명물이하도만치마는 그중가장자랑하고십흔것은 관서팔경주하나인백상루(百祥樓)이다백상루는안주성북동혼 언덕우에옷독소사잇서 그의건물이 뎡자형(丁字形)이층으로 되얏는데밋층에는 이십처되는것발로세울만치넘고 옷층에는수천명안즐회석(會席)이되리만치넘어서웅장편전하기로는 참말관서데일이라할수잇스며 단텽조각(丹靑彫刻)이고묘한것은 과연우리 반도예술사(半島藝術史)에한페지기록을 차지할만한가치를가진것이다

◇

다락압으로보는 지금부터위천삼백년전에 고구려을지문덕(高句麗乙支文德)장군이완강한수(隋)나라백만대병을 엄사에함락하든살수(薩水)곳청천강(淸川江)이흐니잇고 그강안서쪽에는근세혁명(革命)을넘으킨홍경래(洪景來)장군이 평북십여주를한칼로 항복밧고상차경양성을못치르려 수만대군을거느리고잇든송림촌(松林村)남은벌이기리로 노여이는데넷날에는강물이 바로다락밋흐로굽이굽이흘너가서 누구든지다락우에가만히 안저서도능히킹천강큰고기를 낙그리만큼되엿든것이그만자연의 세력을익이지못하야 지금은한십뎡밧그로불너나가 흘으게된것만은 조금유감이다 그러나누구든지다락우에올나서서킹천백사(淸川白沙)홈으른물에순풍에 달닌돗(帆)이바로 강엽흘씨고가는과차와경주하는 광경을볼때에는과연금석의 늣김을 키어려울것이다

◇

그리고멀니동북으로 백운사이에소사잇는묘향(妙香)백벽(白壁)약산동대(藥山東臺)서쪽으로황해(黃海)에 돌출한칠화산(七華山)등을 바라보며갓가히안주성안 아츰시덕연긔가운데잠기여잇는 칠성지(七星池)를굽어볼때에 참말사시풍경이얀음을수잇스리니 이것이곳지금말하는 관서팔경(關西八景)의한아인백상루이다

◇

그러나 이와가치웅장하고미술뎍가치를가진 명승고적으로서그의건축년대(年代)를 알지못하게된것이 큰유감이다다만고려충숙왕(高麗忠肅王)의남기인백상루시(詩)한편을 보와서적어도 칠백년전에된것은물론신라(新羅)말년이나 고려초긔(高麗初期)에 창건되엿슬것을추측할수잇슬뿐이다 이에충숙왕시를그냥소개하야 백상루승경의엇더한것을 엿보게한다

高麗忠肅王百祥樓詩
淸川江上百祥樓萬景森羅不易收
草偃長堤靑一面天低列岫碧千頭
鳶鷗影裡飛孤鷺王鏡光中點小舟
未信人間仙境在塵頭今日見瀛洲

(安州一堂生)

◇投稿者 安州 鄭應[illegible]
◇薄謝 本報購讀券 三個月分

投稿者에게

사진을요구함

명물투고중에 사진업는것이간혹잇서서 여러가지다른점은구비하나이까닭으로 당선못되는분이잇슴니다 여러번말한바와갓치명물그자테의사진을 이튼수업는경우에는그와관련(關聯)된다른사진이라도 좃슴니다 사진을보내지안는투고자는 발리구하여보내주소서—記者

投稿繼續受理

내고을명물투고

지방통신대금인환(地方通信代金引換)
모기장 蚊帳
(尺數는曲尺)

蚊帳은信用잇는商店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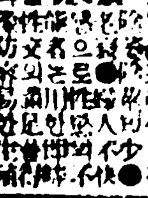
◎망사蚊帳之部
長六尺廣三尺 一人用 一件 二圓六十錢
長六尺廣三尺五寸 二人用 同 三圓
長六尺五寸廣五尺 三人用 同 三圓七十錢
長六尺五寸廣六尺 四人用 同 四圓二十錢
長六尺五寸廣八尺 五人用 同 四圓九十錢
長六尺廣九尺五寸 六人用 同 五圓五十錢
(但十件以上注文에는五分割引홈)

◎西洋망사蚊帳之部
長六尺廣五尺五寸 一件 八圓二十錢
長六尺廣六尺 同 九圓
長七尺廣六尺 同 十圓

◎生絹蚊帳之部
長六尺廣四尺五寸 一件 七圓五十錢
長六尺廣六尺 同 八圓五十錢
長七尺廣六尺 同 十圓

아사(アサ)蚊帳各種
小供用(어린이)蚊帳各種

市內電話問配達홈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番地
各種蚊帳製造商 寶光號
電話本局一八二七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六六一番

生殖器還少器 프레사ー

[illegible]
東京 興亞化學工業部

바든집에서는 二重의기붐
몹시문지르지안어도거품이잘닐어나는
베루벳도비누
ベルベツト石鹼
今 五大作品의漫畵浴衣地 二萬反提供
[illegible]
ベルベツト石鹼株式會社

六堂 崔南善 著
「포인트」印刷 洋裝全一册 紙數三百頁
名勝古物珍奇寫眞多數及巡禮地圖挿入

尋春巡禮

定價 金壹圓五拾錢
送料 金拾八錢

▲白熱的大歡迎으로一版將盡▼

△三十三題、一千細目、詩調百餘篇

山河大地에活讀한朝鮮心의大聖典을讀하라!!!

著者ㅣ滿腔熱血의情과 滿目愴惻의懷로大朝鮮國土禮讚의頁에寅하야 一枝一枝으로山河의秘隱을探究하고 俊眼健筆로風物의眞相을描寫하매 [illegible]이紙上에振動하고 [illegible] 그東國의[illegible]은 진실로藝術至精의盛事로 이미識者의推許를어든바요 이제公刊하야 大方의[illegible] 尋春巡禮는그主要한一部를作하는者ㅣ라

金寺松臺에虎乳兒의悲迹을論하고 太山月塘에[illegible] 月明落照에[illegible]의大演說을諦聽하고 「赤壁」奇文에[illegible]하고 將軍金德齡의[illegible]을 夕陽[illegible]의下에[illegible]하고 妓蘆兒의一代絶交를[illegible]하고 不厭古道의[illegible]를闡明하고 무득朝鮮佛敎의[illegible]하야 人오로하야금 一悲一歎에[illegible]케하는者ㅣ存하며 山岳住民의[illegible]하고 巨石文化의[illegible]의立石에[illegible]를歎하고 高敞의華表와[illegible]의石檣에 [illegible] 天子將軍의人文科學의 民族의[illegible] 驅龍逐盜의傳說에[illegible] 古義에[illegible] 獨照를[illegible]하니 [illegible]史學、人類學、宗敎學、說話學과朝鮮民族生活의復興表象인[illegible]이 意味깁흔無韻長詩는 [illegible]

發賣所
博文書舘 京城鍾路二丁目八二 振替京城二〇三三番 電話光一一六九番
新舊書林 京城公平洞 振替京城一八五二番
白雲社 京城竹添町 振替京城七四六三番

ClibPDF - www.fastio.com

兩取合併의反對有勢
仁川公職者大會
合併反對決議文

◇旣報 仁京兩取合併反對의仁川公職者大會는 昨九日午後九時 仁川穀物協會樓上에서 開催되엿는데 出席한 公職者는 五十餘人이며 開會劈頭에 仁取京城移轉防止會委員長 力武淸次郞氏로부터 仁取重役運動한 經過報告가 잇슨 後 出席員이 各各 意見을 交換하야 仁取京取合併에 對한 利害와 經路를 市民大會에 訴하야 徹底히 合併反對運動에 努力하기로 하고 當席에서 左와 如한 決議文을 作成하고 午後十一時半에 閉會하엿더라

決議文

仁川米豆取引所 京城株式現物市場合併은 仁川取引市場 京城移轉을 促進하는 前提로 認하야 絶對로 合併反對 意思를 表明함

◇力武淸次郞氏陳述 仁川公職者大會開催의 狀況은 別項과 如하거니와 其大會席上에서 仁取移轉防止會委員長 力武淸次郞氏와 後藤連平氏는 左記와 가치 陳述하엿다 仁取京取合併反對에 對하야 總督府에 陳情을 하자면 爲先 仁川市民은 어느 階級을 勿論하고 一致한 步調를 取함이 必要가 有함으로 本是仁川市民의 하나이오 더욱히 모든 公職을 띄고 잇는 仁川에 任所를 有한 仁取重役인 吉田, 河野, 大平, 若松氏를 歷訪하야 진즉 其合併運動을 中止하는 것이 妥當하겟다한즉 其四氏는 會社의 合併이오 市場의 合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一向 不得要領의 答辯을 하는데 亦是仁川市民으로서 仁川市民 大衆의 意思를 無視하면서까지 期於히 合併을 實現케 하랴다는 것은 要컨대 裏面에 推測하기 어려운 自己本位의 利得策動이 잇는 듯하다고

◇後藤連平氏陳述의 仁取重役連中은 會社合併이오 市場合併이 아니라는 것을 言必稱 내세우나 仁取社長 若松氏가 一年間을 繼續하야 仁取京城移轉運動에 熱中하다가 畢竟 失敗한 結果에 일음을 조츠 手段을 變更하야 會社合併이라는 妙策을 案出한 것이니 此合併을 實現시키라고 熱中하는 것은 會社合併이 아니라는 것을 實現하야 市場合併의 前提임으로 到底히 其目的을 信用할 수 업는 것이다 然則 仁川市民 一致로써 反對意思를 表示하면 此合併은 防止할 수 잇스리라고

仁川商議
緊急會議
合併反對決定

仁川商業會議所에서는 再昨九日午後一時부터 臨時評議員會를 開催하고 左記緊急議案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左와 갓흔 決議를 滿場一致로 可決하엿다더라(仁川)

◇決議 仁川米豆取引所와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과의 合併은 仁川米豆取引所의 京城移轉을 誘致할 前提이라 하야 此에 反對의 意思를 表明함

合併이最適
不成立이면辭職
仁取若松社長談

連日兩取合併의 反對가 猛烈하고 仁取大株主內海氏의 反對意見이 意外로 强硬하야 合併不成立說이 盛傳하는 바 萬一 不成立이 된다고 假定하면 若松氏는 어떤 態度를 取할가 하야 同氏의 談을 드른즉 아래와 갓다
나는 仁取、京取의 合併이 仁取將來를 爲하야 最善策이라 생각하며

低資融通
殖銀、東拓에
產米增殖資金

朝鮮產米增殖計劃實行資金으로 大藏省預金部가 本年度에 朝鮮殖產銀行을 通하야 三百五十萬圓 東拓을 通하야 五百萬圓 合計 八百五十萬圓을 融通하기로 決定한 것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右產米計劃에 對한 朝鮮의 拓殖事業은 最近顯著히 進捗中임으로 朝鮮殖產銀行及東拓에서는 低資需要의 必要에 迫하야 今回 右資金融通의 申請을 하엿는 바 預金部에서는 特別한 事情이 업는 限에는 來十五日附로 外에 八百五十萬圓을 融通하기로 決定하엿는 바 條件은 總額八百五十萬圓 利率年五分 一厘 期限滿二十五年이라더라

上半手形
地方別
湖南方面激增

朝鮮에서 上半期의 全朝鮮手形交換高는 五億六千九十八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七百七十萬圓의 增加인바 各地方別로 今年上半期와 前年同期와 갓고 此에 對하야 地方別로 보면 湖南地方의 經濟的發展이 顯著하야 今年은 群山이 不少 하다더라

政府態度一變
金解禁時期에對한
程度如何興味視

濱口藏相金解禁問題에 對한 方針은 去四月二十九日手形交換所大會에서 發明한 바와 如하거니와 其後로 財界에서는 各方面의 意見을 聽取하기 爲하야 民間의 有力者를 招請하고 各方面의 意見을 聽取하는 中 今後도 繼續하야 民間의 意見을 聽하는 同時 大藏省에서도 各國에 對하야 詳細한 調査를 遂한 結果 大藏省의 金解禁에 對한 態度가 四月二十九日의 聲明과는 多少 變更할 必要가 잇다는 結論에 到達하엿다 하는 바 同件에 對한 聲明은 左와 如하더라

聲明 日本財界의 根本的 改善을 期하라면 國際貸借를 根本的으로 改善할 必要가 잇고 또 그 時機가 到來하엿다 하야도 政府는 金解禁의 時機를 早速히 決定함이 必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東京電)

元山上陸滿粟
一萬二千噸

咸鏡線과 朝鮮線의 最大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東中線은 殺到하야 滿洲粟은 元山에 上陸되엿는바 北滿粟이 一萬二千噸에 達한바 此는 昨年 同期의 約六千噸에 比하면 二倍가 되고 安東通過滿洲粟의 二十萬噸에 比하면 約二十分의 一인데 그 輸送行程은 爲替關係와 高場等의 障害임을 不拘하고 此의 現象을 不少한 것이라더라

朝鮮經由綿布
前年보담半減

今年에 大阪製綿布의 朝鮮線經由滿洲輸出數量은 一千二十四噸으로 昨年에는 關稅會議의 特惠關稅撤廢豫想輸入한 것이며 前年 二千噸에 比하면 約半數로 減한바 此는 本年에 入하야 激減한 것은 關稅會議의 中止와 銀價의 下落으로 因한 資金困難과 旱災豫想으로 因한 人氣가 沈衰하야 不振하는 것이라더라

(單位千圓)

京城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와 大邱는 上位를 占케되며 交換高가 거의 接近하엿더라

全鮮市場
一年賣買高

朝鮮內商取引上 市場은 가장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 잇는 바 特히 常設店舖營業의 發達치 못한 土地에 잇서서는 日用必需品의 賣買는 全然 市場에서 行하다 今最近의 統計에 依하야 보면 場屋을 設置하고 區劃한 地域에서 每日 又는 定期로 多數의 需要者와 供給者가 來集하야 物品을 賣買하는 사람이 一千二百餘萬이오 一箇年의 取引高 一億三千餘萬圓을 算하야 十人以上의

營業

者는 場內에서 主로 穀物食料品의 販賣를 하는 곳이 七個所로 그 取引高 約九百萬圓에 委托을 受하야 競賣의 法을 依하야 物品又는 有價證券의 賣買取引高 六億一千七億五千百萬圓에 達한다더라

米輸移出
五百萬石豫想

總督府農務課에서 發表한 最近朝鮮米輸移出豫想高는 約五百四十萬石으로 八月一日現在 大正十四年產米의 總輸移出豫想高는 約五百四十萬石으로 內外로 豫想하는 바 過去二個月間의 輸移出狀況은 大體豫想과 大差가 업고 또 今後에 特別한 事情이 업스면 前回豫想보다 大增減은 업슬 것으로 七月一日부터 十月末까지 의 米輸移出豫想高는 이상 輸移出豫想高는 以上 輸移出豫想高 四百四十萬石 中에서 外米輸移出한 實數 四百六十五萬石을 控除한 約七十五萬石假量일 바 右數量은 今後米價의 變遷과 外米等의 輸移入如何에 依하야 多少增減됨은 免치 못하리라더라

群山組銀
勉强率引下
七月一日實施

群山組合銀行에서는 定期預金勉强率을 甲種年五厘 乙種年六厘로 低下하고 七月一日부터 實施하엿더라

關稅改正의輸入
意外로少量

大藏省에서 七月二十八日以前의 關稅改正豫想輸入額은 約三千四百六十萬圓에 不過하야 意外로 적은 數字라더라(東京電)

期米
前場爆發
仁川 十日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illegible]	[illegible]
二節	—	[illegible]	[illegible]
三節	—	[illegible]	[illegible]
四節	—	[illegible]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八節	—	[illegible]	[illegible]
九節	—	[illegible]	[illegible]
十節	—	[illegible]	[illegible]
前日前止		[illegible]	[illegible]

昨後場三十七圓六十一錢에 高强히 止하엿는데 今朝阪地初付가 二十三丁이 奔高하야 三十九圓六十錢을 報하니 買氣猶漲하야 寄附場으로 三十七圓九十錢에 二十九丁高로 初付한 後 阪地二節七十七錢과 共히 九十九錢에 急騰하다가 賣方의 防戰으로 九十錢에 沮하야 情間 八十六錢을 示하고 九十錢에 强化코 저하는 際에 阪地八節이 一躍하야 四十圓十五錢의 新高價를 報함으로 忽然히 殺氣縱橫하야 買物 殺到의 場面化하야 三十八圓十錢에 爆發하야 十九錢에 續騰하다가 阪地止價小弛를 듯고 三十八圓에 反落하야 止하다

後場臺割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illegible]
二節	—	—	[illegible]
三節	—	—	[illegible]
四節	—	—	[illegible]
五節	—	—	[illegible]
六節	—	—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止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 (單位石)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帳入價格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賣買高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數 [illegible]

今日天氣
中部以北에는
順雨가잇슬듯

◇槪況 日北支那에는 新低氣壓이 出現되야 七四七粍을 示하야 東으로 移動하야 잇고 「아마미」大島附近에는 七五五粍의 小低氣壓이 有하나 高氣壓은 日本南東方洋上에 七六二粍을 示하고 잇다 天候는 北支那山東方面은 雨요 靑島에는 當雨가 잇는데 南鮮으로부터 日本一帶는 好晴한 곳이 多하고

◇豫想 日北支那의 低氣壓은 進路가 多少不明한 點이 有하나 普通東으로 移動하야 黃海에 出來할 것으로 볼수밧게 업슴으로 朝鮮天候는 一般에 漸次惡化하야 오더로 移하면 半島中部以北에 相當한 順雨가 잇슬듯하다 黃海沿岸에는 一層惡化을 難免이다 (十日觀測所發表)

又復八圓突破
活躍의商勢

近般順雨를 動機로 하야 百五十丁急落한 後 爾來一息商狀으로 鍛鍊的 低迷를 하든 阪仁步調는 昨日來 依然强化하야 今朝當地는 다시 三十八圓臺를 突破하는 活況을 呈한 다 急遽히 爆發하는 動機는 阪地의 主要를 決하게되엿는데 日 農務省發表로 말할지라도 農務省發表의 雨量不足과 氣溫低下와 雨量不適으로 아보면 氣溫低下와 雨量不適으로 大體生育이 良好치 못하다하며 鮮中部以北은 稲付부터 如意히 進捗되지 못한 狀態에 잇스니 今後에 賣로 無類의 理想天候가 持續되기前에는 大體 只今外지의 年事貌樣을 보아서 豐作을 期約키 어려운 바이 잇다 그러한즉 漠然히 理想賣를 固持할수업슬듯하다

米豆餘墨

◇…百丁低押後에 一息商狀을 呈하든 步調는 다시 活躍하기 始作한다 大勢所使에 値頃을 論議할 餘暇가 잇나

◇…京取仁取合併問題는 仁取重役連中인 觀測하는 바와 가치 平凡히 通過는 아니될 貌樣인걸 仁川市民의 反對熱狂하는 것을 보니가

◇…仁取重役은 辭解하야 日다 만 會社自體만을 合併할 뿐이오 市場은 依然仁川에 두는 것이니 何等의 떠들 必要가 업다고

◇…仁川市民反駁日 市場移轉을 하지 아니할 會社合併을 必要가 어데 잇느냐고 年來 仁取重役連中의 仁取京城移轉運動에 熱中하야 온 事實에 鑑하야 그러한 模糊한 수작을 못 치 맘나고

◇…其合併이 實現되지 못하는 日에는 辭職을 俱失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겟는가 彼 새이 仁取重役들은 責任이나 길수업지 그러나 가合併實現에 最大한 努力을 내일 수밧게 其中에도 事務씩하야 준다는 바람에 其主體에서 反對決議를 하도 不拘하고 超然히 贊成하는 군이 잇다지

各店俵合

中限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先限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防戰賣亦激烈

數日來低押으로 한숨을 쉬이게된 賣方은 日來低處에서는 多少利食을 하야 가면서 또 舍흐감에는 不絶히 賣落하야 其賣玉을 漸漸增大하야 가는 光景이더니 이제 又復爆發을 遭遇하엿다 그러한데 賣方이 其理想으로 하는 秦商米移入時期도 到來하엿고 또 所謂 靑田賣하는 것도 임로부터 보게되엿슴으로 昨今强化하는 곳에 勇敢히 逆襲하야 자 못 激烈히 防戰의 態度를 取한다 現에 初付氣勢가 高騰하고 外곳 伸悩의 步調를 演하는 것도 要컨데 其防戰賣의 威力일 것이다 當場朝鮮事情으로 말하면 適順한 雨量을 渴望하는 狀態인 즉 急히 順雨라도 보게 되면 人氣消長의 關係로 다시 低弛하는 곳이 잇슬 것이다 만은 只今의 大候狀으로는 降雨의 消息도 渺然하니 其牧派의 防戰物은 徒히 强派의 買物로 消化되야 버리어 到底히 强調를 抑壓치 못하고 말 것이나

理想賣固持難

從此下半期米價는 年事形便에 依하야 騰落된다는 것은 昨紙本欄에 서論議한 바 有하거니와 그것이 固然한 理勢이오 또 從來多年前例가 每年그리하다 그러함으로 일로부터 의 年事의將來를 逆觀하야 其 亚强化하는 것만은 警戒할 必要가 잇다

米賣買와 一流買方의 買出動所以라 한다 步調가 俄然히 强化하는 것도 要컨데 其防使이라 한다 此에 對한 理由 如何하던지 實로 出盛期를 當한 바와 가치 一時의 步調가 再次 悲觀에 傾하야 오 人氣가 其根本的으로 轉換케 할 바이 잇슴을 全然 發見할 수 업는 此際인 즉 其値頭를 하지아니하고 其新子勢力이 조금만 退하게 되는 것을 本欄에 特記하엿지만은 昨日 以來의 新勢力은 新買勢와 當然한 順路일 것이다 勃發한 後의 當場仲悩의 氣味가 有하고 이미 新勢가 이로 沮喪 할 것으로 오히려 當場의 買物을 促進하야 遠近處에서는 仍然急落한 記憶이 아직도 新한 까닭이다

仁川正米標準時勢
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㊄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查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一石 [illegible]
正租 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	[illegible]	[illegible]
二節	—	[illegible]	[illegible]
三節	—	[illegible]	[illegible]
四節	—	[illegible]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三十九圓九十四錢 ◇先限

東京期米

	前場		後場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兵庫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下關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各地期米高低

	前日止價	今日前付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兵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桑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各地穀物

釜山 賣買高 [illegible]石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

	七月末	八月中	九月末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七月末	八月中	八月末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賣買高 [illegible]石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

	七月末	八月中	八月末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七月末	八月中	八月末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賣買高 [illegible]石 全羅三等 [illegible] 同四等 [illegible]

	七月末	八月中	八月末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後場)

	七月末	八月中	八月末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
前場下押
京取 十日

▲京取二十錢低 ▲鍾新十錢低 ▲大新一圓低

仕手雙方傍觀
上旬賣買의懸念

大新은 百十一圓十錢付價後保勢狀態이엿스나 十一日의 休日과 仕手는 雙方이 모다 傍觀의 態度로 商內는 매우 閑散이엿스며 引際에 下押하야 十圓三十錢大引이엿고 鍾新은 百五十三圓九十錢付價後 四圓臺로 硬化하고 强保勢의 場面이엿스나 阪地보다 一圓의 大下鞘인 大引三圓七十錢이엿스며 京取는 三十一圓二十錢 步調로 依然不味의 高情이엿다

大新의氣迷
目前分岐難

東新은 百八十四圓乘落戰이엿스나 그 伸力이 微微하야 今朝 百七十九圓臺이 엿을 作하야 大新의 阪付도 百十一圓臺의 百十圓六十錢임을 보고 當地는 百十一圓十錢付價後 引際에 畢竟一圓臺割이엿다 要컨데 八九圓金融緩慢豫想과 月銀利下의 期待로 高一此가 實現되면 大爆騰을 演出할 것이라 하야 軟派의 新規賣物이 업슴으로 顯著한 下勢가 업는 一面에 玉整理等의 關係로 仕手筋으로 可觀의 伸氣도 업시 가장 氣迷의 商情을 呈하며 今朝에는 東新低를 作하야 大新은 軟退味가 잇 것은 바 何如間은 新刺戟이 업는 限에는 何等 分岐가 업슬 것인 즉 따라서 保勢를 支持할 듯하다

鍾新稍鈍感味

鍾新은 綿絲 紬價의 反騰을 밧어 底强의 勢를 示한 바 今朝에도 米

棉一圓五十錢高
綿系二三圓 暴騰이엿스나 鍾新의

阪付는 百五十四圓五十錢으로 四十錢高를 示하야 그 反騰이 微弱한 을 보고 當地도 百五十四圓付價後 四圓臺해의 三圓七十錢大引이 잇 가적어 買進할 便이 만흐나 玉整理 와 高率의 賣日步로 新規買가 躊躇 치 아니 하야 自然히 鈍感商狀을 呈 하는 것으로 볼 수 잇다 그러나 綿絲 의 暴騰이 一向 持續할 때에는 目前에 追隨的 大市勢가 잇스리라는 觀測이 잇다

長期諸株受渡

株 別	株 數	總 額	單 價
京取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新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土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南鐵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信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鐵新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後場稍硬

▲京取十錢高 ▲大新五十錢高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大新 [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 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一、一七〇枚
累計	七八八、一〇〇枚

大阪長期取引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鍾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三品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當限 一、[illegible] 先限 一、[illegible] 前場 現物武州[illegible]

◎京城綿絲布

▲粗布(廣木) 三星[illegible] 不老草[illegible] 大極星[illegible] 山蔘[illegible] 三神山[illegible] 天桃[illegible] 三A[illegible] 大A[illegible] 金剛山[illegible] 九牡丹[illegible] 金閣[illegible] 煙管[illegible] 雙鶴[illegible] 貫[illegible]
▲細布(洋木) 飛犬13[illegible] 鳥[illegible]
▲晒金巾(玉洋木) 進軍[illegible] 金鼎[illegible]
▲綿絲 扇面16[illegible] 變女[illegible]
▲晒木綿(광목) [illegible]

◎朝鮮銀行券 九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海外經濟 十日着

倫敦銀塊	三〇片八分一
紐育銀塊	六五仙二分一
米綿	一圓五十錢高
印綿	—
英米爲替	四弗八六仙大分五
스털	一三九弗四分一
아나곤다	四七弗四分一

麻衣太子

春園 作
丹谷 畵

풍운 (十一) 【六三】

궁예의군사들은 붉이 솟솟흐르는다리를 이끌고 밤짓고 국소리는 연기나는 랑길의 진중을 향하야 달려간다 세거름에 한번씩 네거름에 한번씩 황울쏘며 물결가치 몰려들어간다 창검은 해人빗에 번적거리고 군사가 지나간뒤에는 먼지人구름이 늡히피어올라 마치 회호리바람지나가는 자최와 갓다

랑길편의 화살은 소낙비모양으로 쏘다지엇다 군사들은 붉은피를 쏟고 번뜻번뜻나자빠지나 그것을 돌아볼새도 업시 군사들이 지아 압헤 싸마케 나아가 뒤에 뷔인벌판에 쓸어진 군사들이 팔다리를 들엇다 노핫다 하며 마즈막 괴로움으로 꿈틀거리는 것이 보인다 두둥둥북소리가 나고 늡와 으아! 하는 무서운 소리가 난다 군사들의 눈에는 산도 업고 들도 업는 듯하엿고 오직 검이 무력무럭 나는 국과 밥과 동의 동의 철철넘는 술과 이 긔는 곳뿐이 보일 뿐이엇다

궁예의 군사가 랑길의 진에 갓가히 오매 랑길의 군사도 활을 버리고 칼과 창만가지고 달려나왓다 이 나무숩헤서 한떼 저나무숩헤서 한떼 인편으로 한떼 을 떼어올 말편으로 또 한떼씩 눈코를 새가업시 번쩍 가치 달려나왓다 랑진의 북은 힘 차게 울고 괴人발을 입에 물고 려다 두편군사는 서로 쉬르고 찌르고 고 겻고 홀고 무서운 단병접전 을하엿다 경각간에 죽은자 상한 자가 너머 분이 마른풀우에 깔렷다 랑길의 군사는 궁예를 피하야 궁 예 업는데로만 도망해 다니며 싸화 시다 그러나 동으로 궁예가 잇고 서로 궁예를 피하면 동에 궁예가 잇섯다 흰 말를 피하면 서에 궁예가잇섯다 흰 무지개 푸른무지개 번뜻거리는 곳에는 모도 궁예가 잇다 칼을 들 어 궁예를 치랴고 하면 벌서 궁예 는 업서지고 흰무지개 푸른무지 개와 갓흔 궁예가 두루는 칼人빗이 궁 예가두루는 칼人빗 번이엇다 두루는 칼人빗이 궁예 의 몸을 차서 살속하나 들어가 박힐 곳이 업는 듯하엿다

랑길은 숩속에서 가만히 량편군사가 싸호는 양과 궁예의 재조를 엿보고 잇다 것헤섯든 사람들을 보고

『과연 녕장이다!』

하고 수업시 칭찬하엿다 궁예가 이리로 치고 저리로 달리고 하는 바람에 랑길의 군사는 솔개에게 쫏긴 병아리떼 모양으로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리 어 조고마한 몸뚱이 하나 감출곳 을 못찻는 듯하엿다

궁예는 할일 업시 병아리떼를 지키는 큰닭모양으로 번 발치 말을 세우고 랑길의 군사가 도로 즈치어 나려 올것을 근심하엿다 그러나 랑길의 군사가 도로 몰아오는 형적은 잠간 싸홈이 끗난 틈을 타 서 놀라서 피난하엿든 새들이 하나씩 둘씩 나무人가지로 돌아오고 풀숩헤서도 잠잣고 숨어잇든 버레들이 조심조심 히울기를 시작 한다

마을내 랑길의 군사는 살기가 기를 시작하엿다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나무人 새리 풀새리에 거 더 채여 업더지며 삽바지며 도망 을 하고 궁예의 군사는 더욱 긔운을 내 어 소리를 지르고 따라간다 숩 거 가든 랑길의 군사가 나무틈에 숨 어서 쏘는 살이 각금궁예의 군 에 섞어지엇스나 얼마 아니하야 그것도 업서지고 랑길의 군사는 숩속과 골작이 속으로 들어가 업서 지고 말앗다

궁예는 더 따라가는 것이 올치못 한줄을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군 사를 거두려하엿다 그러나 군사 들은 벌서 랑길의 진치엇든 자리 에 지어 노흔 국과 밥을 먹기에 겨 를이 업고 동의와 독에 담긴 술을 랭수마시듯 꿀떡꿀떡 마시고 잇 다

숩속으로서 각금 랑길의 군사 의 쏘는 살이 날아오건마는 먹고 마시기에 밧분군사들은 몸을 비 켯 비켯하고 살을 피할뿐이오 할 을 들어마조 솟생각도 아니하엿다 엇던 군사는 입에 밥과 고기를 한 입 잔뜩 물고 씹으면서 살에 마사

社告

本支局管轄 豐川分局長 鄭寅錫 君 이 解任됨에 따러 左와 如히 局員을 變更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 照亮하시압

豐川分局長 高益均
總務 趙鏞謙
記者 高昇均
同 金濟憲
同 盧思泳
寬亭駐在記者 李在根

東亞日報 長湍支局 白

本支局에서 朴斗敬 君을 寬亭駐在記者로 採用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옵소서

東亞日報 延安支局 白

祝東亞日報 木浦支局發展

務安郡荷衣面事務所
面長 張[illegible]
書記 金[illegible] 朴[illegible] 朴[illegible]
同 永[illegible] 石[illegible] 李[illegible]

務安郡都草面古蘭里 高玟喆

務安郡一老面事務所 職員一同

務安郡都草面事務所 職員一同

務安郡都草面新梧里 尹奉同

眼耳鼻咽喉齒科專門
大邱 松井病院
本院 大邱府東城町(電話九九)
分院 大邱府横町(電話九二)
院長 醫學士 松井[illegible]
齒科 女醫 松井[illegible]子
◎지방환자는서신으로문병하시오

松汀里 金山永

金堤邑內 白敬欽

金堤郡白鷗面 金俊植

理里榮町五九〇 朝鮮旅館

金堤郡美[illegible]面 金正八

金山驛前安[illegible] 金東烈

金堤郡萬頃面 郭東吉

金堤郡萬頃面 羅濟鉉

金山春浦面 洪鍾柱

金堤驛前 司法代書人 李箕鎬

金堤郡萬頃面 李周同

黃登驛前 [illegible]株式會社

金堤郡萬頃面 權重彬

裡里 金和炯

金堤郡水流面 金俊基

金堤郡金溝 溫萬河

金堤郡金溝 張錄鎭

金堤郡萬頃面 郭永熙 郭成希

金堤郡萬頃面 郭宰貞

金堤郡金溝 崔直鉉

金堤邑內 碧城病院 院長 姜泰浩 電話四七番